

중국 본초서에 실린 우리나라 본초

¹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敎授 · ²嘉泉大學校 韓醫科大學 學生

金鍾鉉¹, 孫章豪², 李歡熙², 金度勳¹, *

Korean Medicinal Herbs in Chinese Herbal Literature

Kim Jong-hyun¹, Son Jang-ho², Lee Hwan-hee², Kim Do-hoon¹, *

¹Professor at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²Student at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paper seeks to discover and compile the information of the types of Korean medicinal herbs that are recorded in China's medial herbs literatures. Following thi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each herb and the differences in the description of each Korean herb found in different literatures and ages.

Methods : First, the literatures were searched for the names of countries, regions, and people used in Korean peninsula, and a database was compiled based on the findings. Texts with no relation to the subject matter were discarded, and the rests were listed in the order of publicati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medicinal herbs found in these literatures were then studied.

Results & Conclusions : Total of 69 medicinal herbs were found in 34 literatures. These medicinal herbs c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those with superior quality, those that are different from the medicinal herbs used in China, and those that are not available in China. The medicinal herbs with superior quality are: Gonpo(昆布), Insam(人參), Omija(五味子), Tosaja(菟絲子), Haesongja(海松子), Sesin(細辛), Baekbuja(白附子) and more. We can deduce that these medicinal herbs were regarded as superior in quality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in China because they grow in the northeast region where pine tree thrive and a home to many areas with seas and mountains, and also with four distinctive seasons.

Key words : Medicinal herb(本草), Korea(高麗), Chosun(朝鮮), Silla(新羅), Yodong(遼東)

* Corresponding Author: Kim Do-hoon.

Dept. of Medical Classics and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Gachon University.

Tel: +82-31-750-5422, E-mail : chulian@gachon.ac.kr

Received(Jul 27, 2018), Revised(Aug 9, 2018), Accepted(Aug 9, 2018)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序論

1. 연구 동기

한의학은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과 함께한 민족 의학이라 불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의학의 역사적 면모는 그리 많지 않다. 동의보감과 사상체질의학을 제외하면 일반 대중에게도, 심지어는 한의과대학의 학생들에게도 우리의학에 대해 보여줄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의과대학의 의사학 교육은 대부분 중국 의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려 말 향약운동 이전의 한의학 발전이 중국을 통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오랜 사대주의와 식민사관도 하나의 요인이 되었겠지만,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겪으면서 발생한 자료의 소실, 그마저도 반쪽밖에 확인할 수 없는 분단의 현실이 연구에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변 국가들의 문헌에 기록된 관련 내용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한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본초학 문헌에 실린 우리나라 본초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藥은 鍼과 함께 한의학의 가장 중요한 치료 수단이며, 무형의 기술인 침술과 달리 약물은 주고받기 쉽고 기후나 지리에 따라 產物이 달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선행 연구

金斗鍾의 『韓國醫學史』¹⁾는 이 주제와 관련된 최초의 성과로 볼 수 있는데, 고대의 약물 교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국 의서의 기록들을 인용했다. 이후로 발간된 『韓醫學通史』²⁾도 내용은 거의 같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표한 고려시대 이전 한의학에 대한 연구 보고서³⁾에는 본초학 부분에서 중국 의서에 기록된 통일 신라 이전의 약물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논문으로는 신영일,⁴⁾ 이현숙,⁵⁾⁶⁾⁷⁾ 강연

석,⁸⁾ 장인성⁹⁾의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 이현숙은 삼국시대를 위주로 본초 사용 기록과 의학 교류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강연석은 『證類本草』에 나타난 우리나라 본초를 기록하고 향약 집성방과 비교하는 연구를 발표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본초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여럿 발표되었으나 그 한계점도 분명하다. 최초라 할 수 있는 金斗鍾의 『韓國醫學史』는 조사 범위와 인용 대상이 분명치 않으며, 이후의 연구들 중 다수는 이를 그대로 따랐다. 그에 비해 이현숙과 강연석의 연구는 『經史證類備用本草』라는 분명한 연구대상을 설정했으나 宋代 이후의 본초학을 집대성 했다고 평가되는 『本草綱目』을 비롯한 문헌들은 반영되지 못했다. 『證類本草』가 이전 시대의 문헌들을 대부분 취합했다고는 하나 인용 문헌들의 시간적, 내용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기술함에 따라 약물의 산지 및 효능에 대한 기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한계이다.

3. 연구 목표

선행 연구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역대 중국 본초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본초의 기록 전반을 확인하고, 각각에 대한 정보를 취합해 정리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어서 검색 결과로 드러난 본초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우리나라 본초들에 대한 서술이 문헌별, 시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그동안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우리 의학의 한 부분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차후에는 향약 연구 결과와의 비교, 지

1) 김두중. 韓國醫學史(全). 探求堂. 1981.
2) 김기옥 외 15人.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3) 신순식. 고려시대 이전 한의학에 관한 연구(I~II).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보고서. 12. 1996.

4) 삼국시대의 의학문헌 연구 중 일부 언급되었는데 『韓國醫學史』의 내용과 거의 같다. (신영일, 박찬국. 三國時代醫學에 關한 文獻의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3. 1989.)
5) 이현숙. 한국 고대의 본초. 新羅史學報. 33. 2015.
6) 이현숙. 고구려의 의약 교류. 韓國古代史研究. 69. 2013.
7) 이현숙. 신라 의학의 국제성과 의약교류. 白山學報. 83. 2009.
8) 姜延錫, 安相佑.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 나타난 鄉藥本草에 대한 고찰. 韓國韓醫學原典學會誌. 17(2). 2004.
9) 백제 의약과 도교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약물 분야를 일부 언급한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다. (장인성. 百濟의 醫藥과 道敎文化. 百濟研究. 52. 2010.)

리지 등을 통한 실제 생산 기록과의 비교, 의학 교류사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있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잘 자라는 본초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환경적 특징과 약물의 효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분단 이전에 기록된 우리 의학의 일면을 확인함으로써 한의학의 역사와 약물 자원의 관점에서 한반도 남쪽에 한정되었던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검색어 설정, DB를 통한 검색, 검출된 내용 분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검색어는 고대부터 우리나라와 한반도 지역을 불렀던 국명, 지명, 민족명 및 기타 별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활용한 검색어는 다음과 같다. ‘朝鮮’, ‘三韓’, ‘馬韓’, ‘辰韓’, ‘弁韓’, ‘弁辰’, ‘東濊’, ‘沃沮’, ‘夫餘’, ‘扶餘’, ‘夫余’, ‘扶余’, ‘高句麗’, ‘句麗’, ‘百濟’, ‘新羅’, ‘伽倻’, ‘高麗’, ‘渤海’, ‘樂浪’, ‘帶方’, ‘玄菟’, ‘臨屯’, ‘眞番’, ‘安東’, ‘靑丘’, ‘震檀’, ‘鷄林’, ‘遼東’, ‘東國’, ‘權域’, ‘權花鄉’, ‘君子國’, ‘鰐域’, ‘大東’, ‘東夷’, ‘九夷’, ‘濊貊’, ‘東人’, ‘海東’, ‘左海’ 등이다

검색 DB는 電子版 『四庫全書』¹⁰⁾와 『中華醫典』¹¹⁾을 사용하였다. 검색 대상에 포함된 본초서는 59종으로 다음과 같다. 『神農本草經』, 『吳普本草』, 『本草經集注』, 『新修本草』, 『海藥本草』, 『本草圖經』, 『名醫別錄』, 『證類本草』, 『本草衍義』, 『湯液本草』, 『本草發揮』, 『神農本草經疏』, 『滇南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蒙筌』, 『本草綱目』, 『本草乘雅半偈』, 『本草徵要』, 『本草易讀』, 『雷公炮製藥性解』, 『藥鑿』, 『本草正』, 『本草通玄』, 『要藥分劑』, 『本草新編』, 『本草備要』, 『本經逢原』, 『本草經解』, 『本草從新』, 『神農本草經讀』, 『神農本草經百種錄』, 『本草綱目拾遺』, 『本草崇原』, 『本草求真』, 『本草述鈎元』, 『本草思辨錄』, 『本草綱目別名錄』, 『本草撮要』, 『本草問答』, 『本草擇要綱目』, 『得配本草』, 『本草害利』, 『本草分經』, 『雷公炮炙論』, 『炮炙大法』, 『藥性切用』, 『藥論』, 『本

草正義』, 『長沙藥解』, 『玉楸藥解』, 『食療本草』, 『食療本草』, 『食鑿本草』, 『食物本草』, 『本草便讀』, 『神農本草經贊』, 『珍珠囊補遺藥性賦』, 『藥性四百味歌括』, 『藥性賦』 등이다.

검색 결과 100종에 가까운 본초가 검색되었으며, 그 중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69종이었다. 검색어가 한번이라도 나온 문헌은 34종이다. 내용상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하고, 검출된 문장은 인쇄본의 원문과 대조해 수정과정을 거쳤다.

검색된 문장은 시대 순으로 가장 앞선 문헌만을 본문에 기재했으며, 후대 문헌이 같은 내용을 인용한 경우는 각주로 표기명만 기록했다. 전체 약물의 기술 순서는 한글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따랐다.

II. 本論

1. 茄, 茄子

“新羅國出一種，淡光，微紫色，蒂¹²⁾長味甘。今其子已遍中國蔬圃中。惟此無益，並無所治，止說損人。後人雖有處治之法，然終與本經相失。圃人又植於暖處，厚加糞壤，遂於小滿前後求貴價以售，既不以時，損人益多。不時不食，於可忽也。”(本草衍義·卷之十九·茄子)¹³⁾

“王禎農書云 一種渤海茄，白色而堅實。一種番茄，白而扁，甘脆不濕，生熟可食。一種紫茄，色紫，蒂長味甘。一種水茄，形長味甘，可以止渴。”(本草綱目·菜部第二十八卷·茄)¹⁴⁾

『本草衍義』는 여러 가지 茄 중 하나로 新羅의 품종을 언급했는데, 윤기가 있고 자색을 띠며 꼭지가 길고 맛이 달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도 이 품종을 재배하지만 복용 시기의 제약이 있고, 비료를 많

12) ‘蒂’는 판본에 따라 ‘形’으로 쓰인 것이 있다.

13) 寇宗奭 撰, 常章富, 黃幼羣 點校. 本草衍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46.

14)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689.

10)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11) 中華醫典(第五版). 湖南電子音像出版社. 長沙市. 2014.

이 써서 키운 후 비싼 값에 판다고 했는데, 다른 품종들에 비해 귀하게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¹⁵⁾

『本草綱目』은 『本草衍義』의 내용 외에도 王禎의 『農書』(1313, 元)를 인용해 여러 종류의 茄를 기록했다. 여기에는 渤海의 품종이 속해있는데 색이 희고 堅實하다고 하여 앞서 언급한 新羅種과는 다른 종류임을 알 수 있다.

2. 假蘇

“又以胡荽芥，俗呼新羅荽芥。石荽芥體性相近，入藥亦同。”(本草圖經·菜部卷第十七·假蘇)¹⁶⁾

『本草圖經』은 胡荽芥가 假蘇의 종류 중 하나이며 新羅荽芥로 불린다고 기록했다.¹⁷⁾

3. 鷄(丹雄鷄)

“丹雄鷄……生[朝鮮]平澤。(…·朝鮮乃在玄菟，樂浪，不應總是雞所出。)”(本草經集注·卷第六·丹雄鷄)¹⁸⁾

“今注，雞入藥用，蓋取朝鮮者良。……開寶注，便謂雞入藥用，蓋取朝鮮者良。今處處人家畜養甚多，不聞自朝鮮來也。”(證類本草·禽部第十九卷·丹雄鷄)¹⁹⁾

“別錄曰 雞生朝鮮平澤。弘景曰 雞屬甚多。朝鮮乃在玄菟，樂浪，不應總是雞所出也。馬志曰 入藥取朝鮮者，良爾。時珍曰 雞類甚多，五方所產，大小形色往往亦異。朝鮮一種長尾雞，尾長三四尺。”(本草綱目·禽部第四十八卷·鷄)²⁰⁾

『名醫別錄』²¹⁾은 丹雄鷄의 產地를 ‘生朝鮮平澤’이라 하였고, 陶弘景은 “朝鮮은 곧 玄菟와 樂浪에 있는데, 모든 닭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석했다.

『證類本草』²²⁾에는 『開寶本草』의 설명을 인용한 설명이 두 곳에서 보이는데 내용은 서로 같다.²³⁾ 이에 따르면 陶弘景의 말처럼 모든 닭이 朝鮮에서 나는 것은 아니지만 닭을 약으로 쓸 경우에는 朝鮮의 닭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하지만 『證類本草』의 저자인 唐慎微는 “지금 곳곳의 인가에서 닭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朝鮮에서 왔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여 이견을 표했다.

『本草綱目』의 경우 ‘朝鮮平澤’에 관련된 앞선 논설들을 모두 기록한 후, 닭은 여러 곳에서 나며 종류가 다양하여 크기와 형색이 다른데, 조선의 닭은 꼬리길이가 3~4尺이 되는 長尾鷄라고 하였다. 李時珍은 조선의 닭을 여러 닭 중의 一種으로 규정하여, 모든 닭이 조선에서 왔는지, 혹은 조선의 닭이 더 좋은지에 대한 논란을 피했다.²⁴⁾

4. 鵠

“時珍曰 鵠大於雁，羽毛白澤，其翔極高而善步，所謂鵠不浴而白，一舉千里，是也。亦有黃鵠，丹鵠，湖，海，江，漢之間皆有之，出遼東者尤甚，而畏海青鵠。”(本草綱目·禽部第四十七卷·鵠)²⁵⁾

15) 같은 내용이 『證類本草』와 『本草綱目』에도 보인다.
16) 蘇頌 編撰, 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581.
17) 같은 내용이 『證類本草』, 『本草綱目』, 『本草品彙精要』에도 보인다.
18)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403-404.
19) 唐慎微 著, 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p.538-539.
2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583.

21) 『神農本草經』과 『名醫別錄』은 모두 陶弘景의 『神農本草經集注』에 기록되었다. 원문 중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名醫別錄』의 내용은 [대괄호]로 표기하고, 陶弘景의 주석은 (소괄호)로 표기하였다. 아래도 모두 같다.
22) 『證類本草』는 唐慎微가 처음 저술한 이후 여러 차례 보충되어 간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저본으로 삼은 것은 『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이다.
23) 『開寶本草』는 開寶 6년(973)과 7년(974)에 간행되어 각각 『開寶新詳定本草』, 『開寶重定本草』라 불린다. 전자는 『唐本草』, 『蜀本草』 등을 교정하고 『本草拾遺』 등을 참조한 것으로 馬志가 이를 注解하고, 盧多遜 등이 개정 간행했다. 후자는 李昉 등이 다시 수정해 간행한 것이며, 오류를 입증하여 밝힌 것을 ‘今注’라 하였다. (동양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1권).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190.)
24) 같은 내용이 『本草蒙筌』, 『本草乘雅半偈』, 『本草品彙精要』에도 보인다.

고니(鵠)는 다양한 종류와 다양한 서식지가 있는데 그중 遼東에서 가장 많이 나며, 海青鵠을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5. 昆布

“今惟出高麗. 繩把索之如卷麻, 作黃黑色, 柔韌可食. 爾雅云 綸似綸, 組似組, 東海有之. 今青苔, 紫菜皆似綸, 此昆布亦似組, 恐即是也.” (本草經集注·卷第四·昆布)²⁵⁾

“謹按異志, 生東海水中, 其草順流而生. 新羅者黃黑色, 葉細. 胡人採得搓之爲索, 陰乾, 舶上來中國. 性溫, 主大腹水腫, 諸浮氣, 並癭瘤氣結等, 良.” (海藥本草·草部券第二·昆布)²⁷⁾

“廣濟 療氣膀胱急妨宜下氣昆布法. 高麗昆布一斤, 白米泔浸一宿, 洗去鹹味, 以水一斗, 煮令向熟, 擘長三寸, 闊四五分, 仍取蔥白一握, 二寸切斷, 擘之, 更煮, 令昆布極爛, 仍下鹽, 酢, 豉, 糝調和, 一依法, 不得令鹹酸, 以生姜, 橘皮, 椒末等調和, 宜食梁米, 粳米飯. 海藻亦依此法, 極下氣, 大效. 無所忌.” (本草圖經·草部卷第七·海藻)²⁸⁾

『本草經集注』에서 陶弘景은 『名醫別錄』에 ‘生東海’라 한 것에 대해 “지금은 오직 高麗에서 나온다.”라고 주석했다. 『海藥本草』에서는 新羅의 昆布를 언급하였다. 高麗昆布와 新羅昆布의 색과 모양에 대한 설명이 자세한 것은 중국에서 나는 다른 해조류들과 비교하고 구별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本草圖經』은 唐代의 方書인 『廣濟方』을 인용해 昆布로 국을 끓여 먹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때 昆布는 高麗의 것을 사용한다고 하였다.²⁹⁾

2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567.
26)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319.
27) 李珣 原著, 尚志鈞 輯校. 海藥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22.
28) 蘇頌 編撰, 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212.

6. 款冬花

“第一出河北, 其形如宿蕒, 未舒者佳, 其腹裏有絲. 次出高麗, 百濟, 其花乃似大菊花. 次亦出蜀北部宕昌, 而並不如此. 其冬月在冰下生, 十二月, 正月旦取之” (本草經集注·卷第五·款冬)³⁰⁾

“款冬花, 出常山山谷及上黨水旁, 今關中亦有之. 根紫色, 莖青紫, 葉似葶藶, 十二月開黃花, 青紫萼, 去土一二寸, 初出如菊花萼, 通直而肥, 實無子. 則陶隱居所謂出高麗百濟者, 近此類也.” (本草圖經·草部卷第七·款冬花)³¹⁾

陶弘景은 款冬花의 산지 중 河北에서 나는 것에 이어 高麗와 百濟에서 나는 것이 次上品이며, 그 꽃이 大菊花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本草圖經』은 常山, 上黨, 關中에서 생산되는 款冬花의 생김새와 개화시기 등을 상세히 언급했으며, 陶弘景이 말한 高麗와 百濟의 款冬花가 이와 가까운 종류라 하였다.³²⁾ 현재 『동양의학대사전』에는 款冬花가 우리나라에 없는 약이라고 설명되어 있다.³³⁾ 하지만 문헌들에 근거할 때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관동화의 산지였음을 알 수 있다.

7. 菊花

“叢曰 出川澤田野間, 雍州南陽山谷者最勝. 宿根再發, 亦可子種. 莖葉花實, 種種不同. 即菊譜所載, 龍腦, 新羅, 都勝, 禦愛, 玉毬, 玉鈴, …… 鄧州白等, 亦不能盡收

29) 위의 내용들이 『本草綱目』, 『本草述鈞元』, 『本草乘雅半偈』, 『本草品匯精要』, 『本草匯言』에도 보인다.

30)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355.

31) 蘇頌 編撰, 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193.

32) 같은 내용이 『證類本草』, 『本草綱目』, 『本草品匯精要』, 『本草易讀』에도 보인다.

33) “관동은 우리나라에 없는 약초로서 중국의 하남(河南), 감숙(甘肅), 산서(山西), 섬서(陝西) 등지에 분포한다.”(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1권).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pp.508-510.)

也。”(本草乘雅半偈·卷一帙·花)³⁴⁾

『本草乘雅半偈』는菊花의 산지 중 하나로 新羅를 언급했다. 품질에 대한 설명은 없다.

8. 金, 金屑

“金之所生，處處皆有，梁，益，寧三州及建晉多有，出水沙中，作屑，謂之生金。辟惡而有毒，不煉服之殺人。建，晉亦有金沙，出石中，燒熔鼓鑄爲碼，雖被火亦未熟，猶須更煉。又高麗，扶南及西域外國成器，金皆煉熟可服。”(本草經集注·卷第二·金屑)³⁵⁾

“寶藏論云 金有二十種。又外國五種。……外有五種，乃波斯紫磨金，東夷青金，林邑赤金，西戎金，占城金也。”(本草綱目·金石部第八卷·金)³⁶⁾

“麩金，如麩片，俱出湖南，高麗，江沙水中，淘沃而得，其色淺黃。”(本草匯言·卷十二·金箔)³⁷⁾

『本草經集注』는 金의 다양한 산지 중 하나로 高麗를 들었다.³⁸⁾ 『本草綱目』은 여기에 더하여 외국에서 생산되는 5종의 金에 ‘東夷青金’을 포함시켰다. 『本草匯言』은 麩金이 高麗에서 난다고 했는데 砂金의 일종으로 생각된다.

9. 藥荊

“藥荊，舊不著所出州郡，今生東海及涿州，汾州。”(本草圖經·木部卷第十二·藥荊)³⁹⁾

藥荊이 東海와 涿州, 汾州에서 난다고 하였다. 東海는 가리키는 지역이 넓어서 우리나라 지역을 가리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뒤에 설명한 汾州는 대조영이 건국한 渤海가 설치한 지방행정구역 중 하나이며, 鐵利府에 속했다.⁴⁰⁾ 涿州는 현재의 山東省 淄博市의 위치에 해당하므로⁴¹⁾ 藥荊이 산동 이북부터 만주까지의 지역에 났던 것으로 추측 수 있다.⁴²⁾

10. 藍藤根

“藍藤根。味辛，溫，無毒。上氣冷嗽，煮服之。生新羅國。根如細辛。”(證類本草·草部第六卷·藍藤根)⁴³⁾

『本草拾遺』에 기록된 46종의 기타 식물들을 인용했는데, 그중 藍藤根은 新羅에서 나며 뿌리가 細辛과 비슷하다고 하였다.⁴⁴⁾ 다른 산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11. 鷺

“陸璣詩疏云 青齊之間謂之春鋤，遼東，吳揚皆云白鷺。”(本草綱目·禽部第四十七卷·鷺)⁴⁵⁾

『本草綱目』이 『陸璣詩疏』를 인용해 기록한 바에 따르면 遼東과 吳揚에서는 鷺를 白鷺라고 불렀다.⁴⁶⁾

34) 盧之願 著, 冷方南 王齊南 校點.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48.
35)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146.
36)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459.
37) 倪朱謨 編著, 戴慎 外 4人 点校. 本草匯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p.712.
38) 같은 내용이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綱目』에도 보인다.
39) 蘇頌 編撰, 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402.

4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0권). 서울.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pp.472-473.
41) 百度百科 (https://baike.baidu.com/item/%E6%B7%84%E5%B7%9E/3377869?fr=aladdin)
42) 같은 내용이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도 보인다.
43) 唐慎微 著, 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191.
44) 같은 내용이 『本草綱目』, 『本草品匯精要』, 『本草匯言』에도 보인다.
4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575.
46) 같은 내용이 『本草品匯精要』에도 보인다.

12. 綠益子

“邊誌,⁴⁷⁾ 出遼東, 樹高丈余, 其葉兩兩相對, 開花如蓋大, 黃色, 花謝結實, 亦兩兩相對, 大如木瓜, 綠色, 春生夏熟, 人不可食, 誤食之, 入口即齒落如屑, 舌黑如漆, 滿口裂碎, 血出如水, 終日不能食, 經旬方止. 又能碎骨如泥, 彼處橐駝初生, 取以潤其蹄, 則千里可行, 否則不能行. 其性剛利如錐, 舉而刺之, 利如刀鋸, 凡作角器, 必用此. 性烈有大毒, 能腐骨碎齒, 入外科方術家用.” (本草綱目拾遺·卷六·綠益子)⁴⁸⁾

綠益子是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다른 문헌에는 언급된 바가 없다. 遼東에서 나고 먹으면 사람에게 해가 되는데, 外科 方術家들이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13. 茶朮子

“邊輿考,⁴⁹⁾ 其樹出遼東塞外, 高有三尺許, 葉如南方棟樹, 背有黃白點, 花四出, 形如手, 碧色, 或有八出者, 結子大如拳, 熟便可食, 其甘如飴, 其樹浸水可爲油燃燈, 入藥用子. 治一切病, 遼塞無藥, 土人有病者, 取茶朮子啖之即愈.” (本草綱目拾遺·卷七·茶朮子)⁵⁰⁾

遼東에서 자라는 茶朮子的 생김새와 용처를 설명했다. 변방에서 藥으로 쓰이는 나무를 소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문헌에는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14. 擔羅

47) 어떤 문헌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는데, 변방의 물산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된다.

48) 趙學敏 著, 閔志安, 蕭培新 校註. 本草綱目拾遺.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7. p.168.

49) 어떤 문헌을 말하는지 분명치 않는데, 변방의 물산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된다.

50) 趙學敏 著, 閔志安, 蕭培新 校註. 本草綱目拾遺.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7. p.252.

“味甘, 平, 無毒. 主熱氣, 消食. 雜昆布爲羹. 主結氣. 生新羅. 蛤之類, 羅人食之.” (證類本草·蟲部第二十二卷·擔羅)⁵¹⁾

擔羅는 『本草拾遺』에 기록된 서른여섯 종의 기타 조개류를 인용한 부분에 보인다. 擔羅는 新羅에서 자라며 新羅인들이 먹는다고 하였다. 昆布와 함께 국으로 먹는데 熱氣와 結氣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高麗와 新羅가 주요 산지인 昆布와 擔羅를 함께 국으로 먹는다는 내용으로 볼 때 해조류와 조개류를 국으로 끓여먹는 음식문화가 오래전부터 중국에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⁵²⁾

15. 大麻子

“海東來者最勝, 大如蓮實, 出毛羅島. 其次出上郡北地, 大如豆, 南地者子小.” (本草衍義·卷之二十·大麻子)⁵³⁾

大麻子는 海東에서 온 것이 가장 좋으며 크기가 蓮實만한데 毛羅島에서 나온다고 하였다.⁵⁴⁾ ‘毛羅島’는 제주도의 옛 이름이었던 屯羅, 耽牟羅를 가리킨다.⁵⁵⁾

16. 桃仁

“練精五木. 靈藥遼東. 壤藏仁白. 墻覆花紅. 枝留果碩. 膽拭毛茸. 竹槩梢掛. 允彼飛蟲. 典術, 桃者. 五木之精. 章孝標詩, 求師飽靈藥. 他日訪遼東.” (神農本草經贊·卷三下經·桃核仁)⁵⁶⁾

51) 唐慎微 著, 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627.

52) 같은 내용이 『本草綱目』과 『本草品匯精要』에도 보인다.

53) 寇宗奭 撰, 常章富, 黃幼羣 點校. 本草衍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47.

54) 같은 내용이 『證類本草』, 『本草綱目』에도 보인다.

55) Hua Linfu 外 2人. Dictionary of the Ben cao gang mu, Volume 2: Geographical and Administrative Designations. Univ of California Press. 2016. p.214.

56) 葉志詵 著, 裘慶元 輯. 珍本醫書集成(第1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20.

桃仁에 관해 四言詩이다. 내용 중에 “遼東에서 나는 것이 靈藥이라”, “스승께서 배불리 드실 靈藥을 구하려면 훗날 遼東을 방문하라.”라고 한 것이 보인다.

17. 刀豆

“時珍曰 以莢形命名也. 案段成式酉陽雜俎云 樂浪有挾劍豆, 莢生橫斜, 如人挾劍, 即此豆也.” (本草綱目·穀部第二十四卷·刀豆)⁵⁷⁾

『酉陽雜俎』를 보면 樂浪에 挾劍豆가 있다고 했는데, 꼬투리가 가로로 경사져 나는 모양이 마치 사람이 검을 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며 이것이 곧 刀豆라 하였다.⁵⁸⁾

18. 豚, 豕

“楊雄方言云 豬, 燕, 朝鮮之間謂之豨, 關東西謂之彘, 或謂之豕, 南楚謂之豨.(音喜). 其子謂之豨(音奚), 吳揚之間謂之豬子, 其實一種也.” (本草圖經·獸禽部卷第十三·豚卵)⁵⁹⁾

“時珍曰 豬天下畜之而各有不同. 生青兗徐淮者耳大, 生燕冀者皮厚, 生梁雍者足短, 生遼東者頭白, 生豫州者味短, 生江南者耳小(謂之江豬), 生嶺南者白而極肥.” (本草綱目·獸部第五十卷·豕)⁶⁰⁾

『本草圖經』은 『方言』을 인용해 돼지를 부르는 여러 이름이 있는데 燕과 朝鮮에서는 ‘豨’라 한다고 하였다.⁶¹⁾ 『本草綱目』은 여러 지역에서 자라는 돼지의 특징을 언급했는데, 그중 遼東의 돼지는 대가리

가 희다고 하였다.⁶²⁾

19. 馬陸

“味辛, 溫, 有毒. 主治腹中大堅癥, 破積聚, 息肉, 惡瘡, 白禿. [治寒熱痞結, 脅下滿.] 一名百足, [一名馬軸.] 生[玄菟]川谷.” (本草經集注·卷第六·馬陸)⁶³⁾

『名醫別錄』은 馬陸에 대해 玄菟의 川谷에서 난다고 하였다. 玄菟는 漢四郡 중 하나의 명칭으로, 한반도 북부와 遼東 지역에 있었다.⁶⁴⁾

20. 蕪荑

“蕪荑. 味辛. [平. 無毒.] 主治五內邪氣, 散皮膚骨節中淫淫溫行毒, 去三蟲, 化食, [逐寸白, 散腹中噎噎喘息.] 一名無姑, 一名蕪蕪. 生[晉山]川谷. [三月采實, 陰乾.] (今唯出高麗, 狀如榆莢, 氣臭如玃, 彼人皆以作醬食之. 性殺蟲, 以置物中, 亦辟蛀.)” (本草經集注·卷第四·蕪荑)⁶⁵⁾

“…… 謹案爾雅云 蕪荑一名蕪蕪, 今名蕪蕪, 字之誤也. 今出延州, 同州者, 最好.” (新修本草·卷第十三·蕪荑)⁶⁶⁾

“今注蕪荑, 河東, 河西, 處處有之, 況經云生晉山川谷, 而陶以爲惟出高麗, 蓋是不知其原也.” (證類本草·木部第十三卷·蕪荑)⁶⁷⁾

5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522.
58) 같은 내용이 『本草品匯精要』에도 보인다.
59) 蘇頌 編撰, 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451.
6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p.2685-2686.
61) 같은 내용이 『證類本草』, 『本草綱目』, 『本草品匯精要』, 『本草匯言』에도 보인다.

62) ‘遼東之豕’는 대가리가 흰 돼지를 왕에게 바치려다가 河東에서 온몸이 흰 돼지를 보고 돌아간 고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本草綱目』에서 遼東의 돼지는 대가리가 희다고 한 것과 부합한다.
63)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443.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4권). 서울.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pp.763-764.
65)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306.
66) 蘇敬 等 撰, 尚志鈞 輯校. 新修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91.
67) 唐慎微 著, 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422.

“陶氏曰 今出高麗及波斯諸夷。”(本草匯言·卷之九·蕪荑)⁶⁸⁾

『名醫別錄』은 蕪荑가 晉山의 川谷에서 난다고 하였으나, 陶弘景은 蕪荑가 오직 高麗에서만 난다고 주석하였다. 『新修本草』는 陶弘景의 견해를 인용하고, 이어서 “지금은 延州와 同州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였다. 唐代에는 여러 곳에서 蕪荑가 생산되었고, 다른 지역의 것이 良品으로 여겨졌음을 볼 수 있다. 『證類本草』는 蕪荑가 河東을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날 뿐만 아니라, 經文에도 이미 ‘晉山’이라 했으므로 陶弘景이 高麗에서만 난다고 한 것이 정확치 않다고 지적했다.⁶⁹⁾

한편 『本草匯言』은 陶弘景이 高麗와 波斯(페르시아) 등의 외국에서 난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했다. 倪朱謨가 무엇에 근거했는지 알 수 없으나⁷⁰⁾ 蕪荑가 본래 외국에서 온 약재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1. 墨

“世有以粟草灰偽爲者，不可用。須松煙墨，方可入藥，然惟遠煙爲佳。今高麗國每貢墨於中國，不知用何物合和，不宜入藥。此蓋未達不敢嘗之義。”(本草衍義·卷之十四·墨)⁷¹⁾

좋은 墨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高麗國에서 중국에 진상한 墨은 약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료와 제조 방법을 알 수 없으면 약용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高麗墨의 품질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⁷²⁾ 검색한

68) 倪朱謨 編著, 戴嶺 外 4人 点校. 本草匯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p.608.

69) 이러한 내용들은 『本草綱目』에도 모두 보인다.

70) 『海藥本草』에 “謹按 廣州記云, 生大秦國, 是波斯蕪荑也.”(권3. p.54.)라고 한 것이 있으므로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며,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大秦國은 로마를 가리킨다.

71) 寇宗奭 撰, 常章富, 黃幼羣 點校. 本草衍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92.

72) 같은 내용이 『本草品匯精要』와 『本草綱目』에도 보인다.

내용들 중 대부분의 ‘高麗’는 高句麗를 가리킨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서는 ‘高麗國’이라 하였고 중국에 바친다(貢)라고 한 것으로 볼 때 王建이 건국한 高麗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22. 薄荷, 菝葜

“又有胡薄荷，與此相類，但味少甘爲別，生江浙間，彼人多以作茶飲之，俗呼新羅薄荷，近京僧寺亦或植一二本者，天寶方名連錢草者是。”(本草圖經·葉部卷第十七·薄荷)⁷³⁾

“陳士良云 吳菝葜，能引諸藥入榮衛，療陰陽毒，傷寒頭痛，四季宜食。又云 胡菝葜，主風氣壅，并攻胃膈，作茶服之，立效，俗呼爲新羅菝葜。”(證類本草·葉部第二十八卷·薄荷)⁷⁴⁾

『本草圖經』에서는 薄荷의 한 종류인 胡薄荷를 세간에서 新羅薄荷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證類本草』에서는 陳士良의 말을 인용해 胡菝葜를 세간에서 新羅菝葜라고 부른다고 하였다.⁷⁵⁾ 일반적으로 쓰이는 薄荷와 다른 종류가 있었으며, 그것을 胡薄荷, 혹은 新羅薄荷라고 칭한 것이라 생각된다.⁷⁶⁾

23. 白附子

“主心痛血痺，面上百病，行藥勢。生蜀郡。三月採。此物乃言出芮芮，久絕，俗無復真者，今人乃作之獻用。謹案此物，本出高麗，今出涼州以西，形似天雄，本經出蜀郡，今不復有。”(新修本草·卷第十一·白附子)⁷⁷⁾

73) 蘇頌 編撰, 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584.

74) 唐慎微 著, 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720.

75) 『證類本草』에는 『本草圖經』의 원문도 별도로 수록되어 있다.

76) 같은 내용이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 『本草乘雅半偈』에도 보인다.

“按南州記云 生東海, 又新羅國. 苗與附子相似, 大溫, 有小毒.” (海藥本草·草部卷第二·白附子)⁷⁸⁾

“日華子云 無毒. 止中風失音, 一切冷風氣, 面疔癩疵, 入藥炮用. 新羅出者, 佳.” (證類本草·草部第十一卷·白附子)⁷⁹⁾

“珣曰 徐表南州異物記云 生東海, 新羅國及遼東.” (本草綱目·草部第十七卷·白附子)⁸⁰⁾

『新修本草』에서는 白附子が 蜀郡에서 난다는 『名醫別錄』의 설명과, 이따금 이야기가 있었지만 단절된 것이 오래되어 진품을 알 수 없다는 陶弘景의 주석에 대해 “생각건대 이것은 본래 高麗에서 나온다.”라고 하였다. 『海藥本草』는 『南州記』를 인용해 東海와 新羅에서 난다고 기록했고, 『證類本草』는 이전 내용들과 더불어 “新羅에서 나는 것이 좋다.”는 日華子の 설을 인용했다.⁸¹⁾ 『本草綱目』에는 『海藥本草』와 마찬가지로 『南州異物記(南州記)』를 인용했는데, 產地에 遼東이 포함되어 있다.⁸²⁾ 이처럼 高麗, 新羅, 遼東, 東海가 모두 언급되어 우리나라가 白附子の 주요한 產地였으며, 생산된 약재가 良品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24. 寶石

“時珍曰 寶石出西番, 回鶻地方諸坑井內, 雲南, 遼東亦有之.” (本草綱目·金石部第八卷·寶石)⁸³⁾

寶石的 종류와 산지에 관한 설명이며, 遼東에서

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⁸⁴⁾

25. 茯苓

“今東人采之法, 山中古松, 久爲人斬伐者, 其枯折槎藎, 枝葉不復上生者, 謂之茯苓撥. 見之, 即於四面丈余地內, 以鐵頭錐刺地. 如有茯苓, 則錐固不可拔, 於是掘土取之. 其撥大者, 茯苓亦大. 皆自作塊, 不附著根上.” (本草圖經·木部卷第十·茯苓)⁸⁵⁾

東인들이 茯苓을 채집하는 방법을 기록했다.⁸⁶⁾ 이 내용 만으로는 東인이 우리나라 사람인지 단정할 수 없으나 松子, 海松子, 琥珀, 墨 등의 설명에서 新羅, 遼東, 高麗는 모두 소나무와 관련된 본초의 주요 생산지로 언급되었다. 위의 내용에서 茯苓은 산속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서 언급한 ‘東人’ 역시 한반도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26. 北雲朮

“邊塞志, 產遼東口外五國城等處. 此朮初生土中, 並無枝葉, 生於暗地者多, 城北最盛, 天氣晴和, 則掘地求之可得, 色如枯楊柳, 大小如箸, 蔓延數十步, 屈曲而生. 此地病人無藥物, 凡有疾者, 煎此朮湯服之, 自愈.” (本草綱目拾遺·卷三·北雲朮)⁸⁷⁾

『邊塞志』를 인용해 北雲朮이 遼東 어귀 밖의 五國城 등에서 자란다고 기록했다. 朮의 일종으로 생각되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치는 않다. 생김새, 자라는 환경, 복용법 등을 기술했다.

27. 沙蔘

84) 같은 내용이 『本草品匯精要』에도 보인다.

85) 蘇頌 編撰, 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325.

86) 같은 내용이 『證類本草』, 『本草綱目』에도 보인다.

87) 趙學敏 著, 閔志安, 蕭培新 校註. 本草綱目拾遺.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7. p.69.

77) 蘇敬 等 撰, 尚志鈞 輯校. 新修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170.

78) 李珣 原著, 尚志鈞 輯校. 海藥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34.

79) 唐慎微 著, 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357.

8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184.

81) 같은 내용이 『雷公炮炙藥性解』에도 보인다.

82) 같은 내용이 『本草乘雅半偈』에도 보인다.

83)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505.

“沙蔘 味甘稍苦，微涼，入手太陰肺經。清金除煩，潤燥生津……山東，遼東者佳，堅脆潔白，迥異他產，一切瘡瘍疥癬，腫痛癢癢皆效。”(玉楸藥解·卷一·沙蔘)⁸⁸⁾

이전의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으로, 黃元御는 遼東에서 나는 沙蔘의 품질을 높게 평가하였다.

28. 石腦油

“康譽之昨夢錄載，猛火油出高麗東，日烘石熱所出液也，惟真琉璃器可貯之。入水涓滴，烈焰遽發。餘力入水，魚鱉皆死。邊人用以御敵。此數說，皆石腦油也。”(本草綱目·石部第九卷·石腦油)⁸⁹⁾

『昨夢錄』에서 猛火油가 高麗의 동쪽에서 난다고 한 것을 인용했는데, 이를 石腦油로 보았다.⁹⁰⁾

29. 細辛

“今用東陽臨海者，形段乃好，而辛烈不及華陰，高麗者。用之去其頭節。人患口臭者，含之多效。”(本草經集注·卷第三·細辛)⁹¹⁾

“覈曰 出華陰，高麗山谷中者爲上，今處處雖有，皆不及也。南陽臨海者亦可用”(本草乘雅半偈·卷三·細辛)⁹²⁾

“處處有之，以華陰，高麗者爲眞，其根細而極辛，今多以杜衡僞之。”(本草易讀·卷三·細辛)⁹³⁾

“辛溫，無毒。產華陰及遼東者良。反藜蘆。”(本經逢源·卷一·細辛)⁹⁴⁾

『本草經集注』에서 陶弘景은 “지금 東陽의 바다 가까운 곳에서 난 것을 쓰는데 華陰이나 高麗에서 나는 것만큼 辛烈하지 못하다.”라고 하였다.⁹⁵⁾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細辛에 비해 高麗産의 辛味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本草乘雅半偈』는 華陰과 高麗의 山谷에서 나는 細辛이 上品이며 다른 곳에서 나는 것들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고, 『本草易讀』에서는 華陰과 高麗의 細辛을 眞品이라 기록했다. 『本經逢源』에서는 앞서 高麗라 했던 것을 遼東으로 바꾸었다.

30. 松子, 海松子

“松子，多東海來，今關右亦有，但細小味薄，與柏子仁同治虛秘。”(本草衍義·卷之十三·松子)⁹⁶⁾

“蕭炳云 又有五葉者，一叢五葉如釵，名五粒松，道家服食絕粒，子如巴豆，新羅徃徃進之……衍義曰……松子，多海東來，今關右亦有，但細小味薄，與柏子仁同治虛秘。”(證類本草·第十二卷·松脂)⁹⁷⁾

“松子，大如豆粒，光頭三角，出雲南，遼東，中原無此。”(玉楸藥解·卷二·松子仁)⁹⁸⁾

『本草衍義』는 松子가 東海에서 오는 것이 많다고 하였다. 『證類本草』는 『本草衍義』를 인용했는데 ‘東海’를 ‘海東’으로 바꿨으며, 蕭炳의 글을 인용해 新羅에서 종종 보내온다고 하였다. 『玉楸藥解』에서는 松子가 雲南과 遼東에서 나며 中原에는 없다고 하였다.

88) 黃元御 著. 孫治熙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黃元御).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71.

89)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570.

90) 같은 내용이 『本草從新』에도 보인다.

91)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20.

92) 盧之頤 著. 冷方南, 王齊南 校點.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64.

93) 汪認庵 撰. 呂庵振 外 3人 點校. 本草易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p.148.

94) 張璐 著. 張民慶 外 2人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張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13.

95) 같은 내용이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도 보인다.

96) 寇宗奭 撰. 常章富, 黃幼羣 點校. 本草衍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79.

97) 唐慎微 著. 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p.375-376.

98) 黃元御 著. 孫治熙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黃元御).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80.

“生新羅。如小栗，三角，其中仁香美，東夷食之當果，與中土松子不同。(今附) 臣禹錫等謹按日華子云 松子，逐風痺寒氣，虛羸少氣，補不足，潤皮膚，肥五臟，東人以代麻腐食用。”(證類本草·果部第二十三卷·海松子)99)

“[釋名]新羅松子。[集解] 志曰 海松子，狀如小栗，三角。其中仁香美。東夷當果食之，亦代麻腐食之，與中國松子不同。炳曰 五粒松一叢五葉如釵，道家服食絕粒，子如巴豆，新羅往往進之。瑞曰 松子有南松，北松。華陰松形小殼薄，有斑極香。新羅者肉甚香美。時珍曰 海松子出遼東及雲南，其樹與中國松樹同，惟五葉一叢者，球內結子，大如巴豆而有三稜，一頭尖爾，久收亦油。馬志謂似小栗，殊失本體。…… 按段成式酉陽雜俎云 予種五鬣松二株，根大如碗，結實與新羅，南詔者無別。其三鬣者，俗呼孔雀松。亦有七鬣者。或云 三針者為栝子松，五針者為松子松。…… 均曰 新羅松子甘美大溫，去皮食之甚香，與雲南松子不同。(雲南松子似巴豆，其味不及)。與卑占國偏桃仁相似。多食發熱毒。”(本草綱目·果部第三十一卷·海松子)100)

『證類本草』는 海松자가 新羅에서 나며, 東夷는 그 열매를 먹는데 중국(中土)의 松자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또한 日華子를 재인용하여 東인들이 麻腐를 대신해 식용으로 쓴다고 기록했다.101)

『本草綱目』에서 海松자의 「釋名」에 新羅松子라 했는데 ‘海’는 곧 海外産을 말한다.102) 「集解」에는

99) 唐慎微 著, 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660.

10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828.

101) 같은 내용이 『本草品匯精要』와 『神農本草經疏』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102) 李時珍은 『本草綱目』에서 “花木의 이름에 ‘海’라고 한 것은 海外에서 온 것이니 海菜와 같은 종류가 이것이다.”라고 하였으며, 李白 詩의 주석에 海紅이 新羅國에 매우 많다고 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本草綱目·果部第三十卷·海紅·釋名』 “時珍曰 按李德裕草木記云 凡花木名海者,

新羅松자에 대한 다양한 언급을 기록했는데, 중국의 松자와는 모양, 맛, 향이 달랐고, 차별된 良品으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각을 들여다보면, 蕭炳은 五粒松의 子는 巴豆와 비슷한데 新羅에서 이따금 나온다고 했다.103)104) 吳瑞(『日用本草』)는 松子是 南松, 北松, 華陰松이 있는데 新羅의 것은 肉이 많고 향이 좋다고 하였다. 李時珍은 海松자가 遼東과 雲南에서 난다고 하고, 중국 것과 비슷하지만 다섯 개의 잎이 한 군데서 나고, 낱알 속에 씨앗이 맺히는 것이 巴豆 크기와 비슷한데 3개의 모서리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뾰족하다고 모양을 서술했다.

『酉陽雜俎』을 인용한 것에 따르면 段成式은 자신이 심은 소나무 두 그루에 맺힌 열매가 新羅와 南詔의 것과 구별 못할 정도로 좋다고 말했다. 또한 李珣(『海藥本草』)은 新羅松子是 단맛이 좋고 大溫하며 껍질을 벗기면 향이 많아 雲南松子도 미치지 못하는 데, 많이 먹으면 熱毒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105)

31. 鱒魚

“毛詩義疏云 遼東，登，萊人名尉魚，言樂浪尉仲明溺海死，化爲此魚。蓋尉亦鮪字之訛耳。”(本草綱目·鱗部第四十四卷·鱒魚)106)

遼東, 登州, 萊州의 사람들이 鱒魚를 尉魚라고 부르는 것은 樂浪尉 仲明이 바다에 빠져 죽었는데 변하여 鱒魚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설화적인 내용이며, 요동에 鱒魚, 혹은 尉魚라고 부르는 물고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皆從海外來，如海棠之類是也。又李白詩注云 海紅乃花名，出新羅國甚多。” 30권. p.1767.)

103) 『證類本草』에는 같은 내용이 「海松子」가 아닌 「松脂」에 보인다.

104) 『本草備要』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105) 『海藥本草』에는 新羅를 언급한 바가 없고, 「松子」에서 “味與卑占國偏桃仁相似。其偏桃仁用與北桃仁無異是也。”라고 하고 「海松子」에서 “雲南松子似巴豆，其味不厚，多食發熱毒。”라 하였는데 李時珍이 두 문장을 합쳐서 인용한 것이다.

106)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459.

32. 野馬

“時珍曰 按郭璞云 野馬似馬而小，出塞外。今西夏，甘肅，及遼東山中亦有之。”(本草綱目·獸部第五十一卷·野馬)¹⁰⁷⁾

郭璞의 글을 인용해 遼東의 山中에 야생마가 있다고 기록했다.¹⁰⁸⁾

33. 梁

“郭義恭廣志有解梁，貝梁，遼東赤梁之名，乃因地命名也。”(本草綱目·穀部第二十三卷·梁)¹⁰⁹⁾

『廣志』를 인용해 여러 지역에서 나는 기장(梁)의 종류를 언급했는데 ‘遼東赤梁’이라 한 것이 보인다. 遼東에서 붉은색의 기장이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 驢

“時珍曰 驢，長頰廣額，磔耳修尾，夜鳴應更，性善獸負。有褐，黑，白三色，入藥以黑者爲良。女直，遼東出野驢，似驢而色駁，鬃尾長，骨酪大，食之功與驢同。西土出山驢，有角如羚羊，詳羚羊下。東海島中出海驢，能入水不濡。”(本草綱目·獸部第五十卷·驢)¹¹⁰⁾

女眞과 遼東에는 野驢가 있는데, 일반 나귀와 비슷하나 색이 얼룩덜룩하고, 갈기와 꼬리가 길며, 골격은 크다고 하였다. 또한 東海의 섬에는 海驢가 있는데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다고 하였다.

35. 藺茹(茹)

“今第一出高麗，色黃。初斷時汁出凝黑如

漆，故云漆頭。次出近道，名草藺茹，色白，皆燒鐵爍頭令黑，以當漆頭，非眞也。”(本草經集注·卷第五·藺茹)¹¹¹⁾

“藺茹，生代郡川谷，今河陽，淄，齊州亦有之。二月生苗，葉似大戟而花黃色，根如蘿蔔，皮赤黃，肉白，初斷時，汁出凝黑如漆。三月開淺紅花，亦淡黃色，不著子。陶隱居謂出高麗者，此近之也。”(本草圖經·草部卷第九·藺茹)¹¹²⁾

“近產河陽，原出高麗。苗逢春暖方起，葉類大戟常青。花色黃結子絕無，根皮赤(似蘿蔔根)斷則流汁。黑凝如漆，故云漆頭。五月採根，陰乾，惟取頭黑者勝。使甘草節，惡麥門冬。”(本草蒙筌·卷之三·藺茹)¹¹³⁾

『本草經集注』에서 陶弘景은 高麗에서 나는 것이 최상품이며 황색이고 처음 꺾었을 때 즙이 나와 굳으면 옷과 같은 검은색이 된다고 말했다.¹¹⁴⁾ 『本草圖經』은 代郡, 河陽, 淄州, 齊州에서 나오는 藺茹의 자라는 특성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陶弘景이 高麗에서 난다고 한 것과 가깝다고 말했다. 『本草圖經』이 저술될 당시 이미 많은 산지가 있었음에도 高麗産이 기준이 된 것을 볼 수 있다.¹¹⁵⁾ 『本草蒙筌』은 河陽에서 생산되지만 高麗가 원산지라고 기록했다.

36. 煙草火

“至於煙草之火，方書不錄，惟朝鮮誌見之，始自閩人吸以祛瘴，向後北人藉以辟寒，今則遍行寰宇，豈知毒草之氣，熏灼臟腑，遊行經絡，能無壯火散氣之慮乎。”(本經逢源·卷一·諸火)¹¹⁶⁾

111)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371.

112) 蘇頌 編撰, 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278.

113) 陳嘉謨 撰, 陸拯, 趙法新 校点. 本草蒙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114.

114) 같은 내용이 『新修本草』, 『本草品匯精要』에도 보인다.

115) 같은 내용이 『本草綱目』에도 보인다.

116) 張璐 著, 張民慶 外 2人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張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786.

10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835.

108) 같은 내용이 『本草品匯精要』에도 보인다.

109)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478.

11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779.

煙草火에 대해 “方書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오직 『朝鮮誌』에만 보인다.”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閩인들이 瘴氣를 치료하기 위해 흡입했으나 후에는 北方인들이 寒氣를 피하기 위해 썼고 지금은 두루 쓰는데 毒草의 氣가 臟腑를 熏灼하고 經絡을 유행해 壯火가 散氣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朝鮮誌』에 언급된 점과 北方인들이 사용했다는 점으로 볼 때 煙草가 우리나라 지역에서 많이 쓰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¹⁷⁾

37. 延胡索(玄胡索)

“生奚國，從安東道來。味苦甘，無毒。主腎氣，破產後惡露及兒枕，與三棱，鱉甲，大黃爲散，能散氣，通經絡。蛇虫成末者，使之惟良，偏主產後病也。”(海藥本草·草部卷第二·延胡索)¹¹⁸⁾

“(即玄胡索) 味辛苦，氣溫。無毒。來自安東(縣名，屬南直隸)，生從奚國。因避宋諱，改玄爲延。”(本草蒙筌·卷之三·延胡索)¹¹⁹⁾

“藏器曰 延胡索生於奚，從安東道來，根如半夏，色黃。時珍曰 奚乃東北夷也。”(本草綱目·草部第十三卷·延胡索)¹²⁰⁾

『海藥本草』에는 延胡索이 奚國에서 나는데 安東道를 따라 들어온다고 말했다.¹²¹⁾ 문헌들에 설명된 奚國과 安東道の 위치는 일치하지 않는데, 『本草蒙筌』은 安東이 南直隸의 安東縣이라 하여 현재의 江蘇省, 安徽省, 上海市 일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本草綱目』에서는 奚國을 東北의 오랑캐라고 하였는데 앞선 설명과 배치된다.¹²²⁾ 武建國 등은 논문에서, 奚國은 唐代에 현재 중국의 遼寧, 內蒙古,

河北 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나라이며, 安東道는 河北道の 북쪽의 安東都護府가 관할하던 지역으로 延胡索은 河北과 遼東의 북부에서 생산되어 安東 지역을 통해 중국으로 유통되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¹²³⁾

38. 蜈蚣

“今赤足者多出京口，長山，高麗山，茅山亦甚有，於腐爛積草處得之，勿令傷，曝乾之。黃足者甚多，而不堪用，人多火炙令赤以當之，非真也”(本草經集注·卷第六·蜈蚣)¹²⁴⁾

다리가 붉은 지네(蜈蚣)의 產地로 高麗山을 언급했는데 그 위치가 확실치는 않다. 지도 검색 결과 ‘高麗山’의 지명은 여러 곳에 보이는데,¹²⁵⁾ 대부분이 중국 遼寧과 吉林 지역에 분포한다. 高麗산은 高麗 지역의 산들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¹²⁶⁾

39. 烏頭

“後魏書言 遼東塞外秋收烏頭，爲毒藥射禽獸，陳藏器所引續漢五行志，言西國生獨白草，煎爲藥，敷箭射人即死者，皆此烏頭，非川烏頭也。”(本草綱目·草部第十七卷·烏頭)¹²⁷⁾

川烏頭와 草烏頭의 감별을 설명했다. 『後魏書』를 인용한 부분에는 遼東의 변방에서 나는 烏頭는 독약으로 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했다고 하였다. 또한 陳藏器가 『續漢五行志』를 인용하여 西國의 獨白草도 화살에 발라서 사람에게 쏘면 죽는다고 하니

117) 같은 내용이 『本草綱目拾遺』에도 보인다.

118) 李珣 原著, 尚志鈞 輯校. 海藥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p.25-26. 주석에 奚國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119) 陳嘉謨 撰, 陸拯, 趙法新 校点. 本草蒙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85.

12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803.

121) 같은 내용이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에도 보인다.

122) 『本草乘雅半偈』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123) 武建國, 辛振聲. 延胡索(元胡)源考. 中藥通報. 12(12). 1987. p.9.

124)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442.

125) <https://www.google.co.kr/maps>

126) 같은 내용이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綱目』에도 보인다.

12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177.

이 烏頭는 川烏頭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遼東에서 나는 烏頭는 草烏頭로 볼 수 있다.

40. 五味子

“今第一出高麗，多肉而酸甜，次出青州，冀州，味過酸，其核並似豬腎。又有建平者，少肉，核形不相似，味苦，亦良。此藥多膏潤，烈日曝之，乃可搗篩。道方亦須用。”(本草經集注·卷第四·五味子)¹²⁸⁾

“藪曰 生齊山山谷，青州，冀州，陝西代郡諸處。高麗者最勝。河中府者歲貢，杭越間亦有之，俱不及高麗河中之肥大膏潤耳。”(本草乘雅半偈·卷三帙·五味子)¹²⁹⁾

“味甘酸，核中苦辛鹹，性溫，無毒。入肺腎二經。茯苓爲使。惡萎蕤。嗽藥生用，補藥微焙。遼東肥潤者佳。”(本草徵要·卷之三·五味子)¹³⁰⁾

“陶隱居曰 五味子，生齊山山谷，青州，益州，陝西，代郡及河東，遼東等州，出高麗者多肉而酸甜，最勝他處。”(本草匯言·卷之六·五味子)¹³¹⁾

『本草經集注』의 陶弘景注에서五味자의 최상품은 高麗에서 나는데 肉이 많으며, 시고 달다고 평했다.¹³²⁾ 『本草乘雅半偈』는 중국 각처에서五味자가 나지만 高麗의 것이 가장 좋고, 河中府와 杭越에서 나는 것들은 크고 윤기가 나는 高麗産만 못하다고 하였다. 『本草徵要』에서는 遼東에서 나는 크고 윤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¹³³⁾ 『本草匯言』에서는 앞서

언급된 產地들을 나열하고서, 高麗에서 나는 것이 肉이 많으며 시고 단 것이 다른 지역의 것에 비해 가장 좋다고 했다.

41. 玉

“時珍曰 按太平禦覽云 交州出白玉，夫余出赤玉，挹婁出青玉，大秦出菜玉，西蜀出黑玉。”(本草綱目·金石部第八卷·玉)¹³⁴⁾

『太平禦覽』을 인용해 여러 종류의 玉 중에 夫余에서 赤玉이 생산된다고 기록했다.¹³⁵⁾

42. 臙肭臍

“謹按臨海志云 出東海水中。狀若鹿形，頭似狗，長尾。每遇日出，即浮在水面，昆崙家以弓矢而採之，取其外腎，陰乾百日。”(海藥本草·獸部卷第二·臙肭臍)¹³⁶⁾

“臙肭臍，出西戎，今東海旁亦有之，云是新羅國海狗腎。舊說是骨訥獸，似狐而尖，長尾，其皮上自有肉黃毛，三莖共一穴。”(本草圖經·獸禽部卷第十三·臙肭臍)¹³⁷⁾

“甄權曰 臙肭臍，是新羅國海內狗外腎也，連而取之……又異物志 狗獸出朝鮮，似狸，蒼黑色，無前兩足，能捕鼠。”(本草綱目·獸部第五十一卷·臙肭臍)¹³⁸⁾

“寇氏曰 臙肭臍，出突厥，新羅，女眞，及三佛齊國。”(本草匯言·卷之十八·臙肭臍)¹³⁹⁾

『海藥本草』는 『臨海志』를 근거로 臙肭臍가 東海

128)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66.

129) 盧之頤 著, 冷方南, 王濟南 校點.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50.

130) 李中梓 著, 包來發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李中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7.

131) 倪朱謨 編著, 戴慎 外 4人 點校. 本草匯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p.384.

132) 같은 내용이 『新修本草』와 『證類本草』, 『本草綱目』, 『本草品匯精要』에도 보인다.

133) 비슷한 내용이 『炮炙大法』, 『本草易讀』, 『本經逢源』에도 모두 보인다.

134)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499.

135) 같은 내용이 『本草匯言』에도 보인다.

136) 李珣 原著, 尚志鈞 輯校. 海藥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74.

137) 蘇頌 編撰, 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456.

138)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p.2896-2897.

139) 倪朱謨 編著, 戴慎 外 4人 點校. 本草匯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p.1088.

의 水中에서 난다고 기록했고,¹⁴⁰⁾ 『本草圖經』은 腦朮膺가 지금은 東海 쪽에서도 나는데, 新羅國의 海狗腎이며 예전에는 骨訥獸로 불렀다고 말했다. 따라서 『海藥本草』와 『本草圖經』의 東海는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의 바다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⁴¹⁾

『本草綱目』에서는 甄權의 말을 인용해 腦朮膺는 新羅國 물개(海內狗)의 外腎이라 하였다. 또한 『異物志』를 인용해 豹獸가 朝鮮에서 나는데 狸와 비슷하고 검푸른 색이며 앞다리가 없다고 하였다.

『本草匯言』에는 寇氏의 말을 인용해¹⁴²⁾ 腦朮膺가 突厥, 新羅, 女眞과 三佛齊國에서 난다고 기록했다. 突厥, 新羅, 女眞은 모두 한반도와 만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국가 혹은 민족이므로 腦朮膺가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많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牛骨

“時珍曰 東夷以牛骨占卜吉凶，無往不中。牛非含智之物，骨有先事之靈，宜其可入藥治病也。”(本草綱目·獸部第五十卷·牛)¹⁴³⁾

東夷 사람들이 牛骨로 길흉을 점쳤다는 내용이다. 또한 뒤에 骨을 약에 넣어 병을 치료하기에 마땅하다고 하였으니 소뼈를 藥으로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44. 牛魚

“藏器曰 生東海。其頭似牛。時珍曰 按一統志云 牛魚出女直混同江。”(本草綱目·鱗部第四十四卷·牛魚)¹⁴⁴⁾

陳藏器的 『本草拾遺』을 인용해 東海에서 난다고

하였고, 이어서 『一統志』를 인용해 “牛魚는 女直과 混同江에서 난다.”라고 하였다. ‘東海’만으로는 우리나라를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은데, 女直은 女眞을 말하며 混同江은 松花江의 지류이므로¹⁴⁵⁾ 『一統志』에 따르면 牛魚는 만주에서 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한 점은 牛魚가 바다와 강에서 모두 난다고 말한 것인데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다.¹⁴⁶⁾

45. 威靈仙

“唐正元中，嵩陽子周君巢作威靈仙傳云 先時，商州有人重病足不履地者數十年，良醫殫技莫能療。所親置之道旁，以求救者。遇一新羅僧見之，告曰 此疾一藥可活，但不知此土有否。因爲之入山求索，果得，乃威靈仙也。使服之，數日能步履。其後山人鄧思齊知之，遂傳其事。”(本草圖經·草部卷第九·威靈仙)¹⁴⁷⁾

『本草圖經』에서 『威靈仙傳』을 인용한 내용이다. 십 년간 중병으로 땅에 발을 딛지 못한 사람이 우연히 新羅의 승려를 만났는데, 말하길 “이 병은 어떤 약을 먹으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이 지역에 그 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후에 산에서 이 약을 구해 먹고 나왔는데 그것이 곧 威靈仙이라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시 중국에서는 威靈仙이 약으로 쓰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新羅의 승려가 威靈仙의 효능을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 新羅에서는 이미 약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⁴⁸⁾

46. 琉璃

145) 中國社會科學院. 中國歷史地圖集(第六冊). 三河. 中國地圖出版社. 1996. pp.42-43.

146) 검색상으로 牛魚는 쥐치를 가리키는데, 쥐치는 바다에 서식하므로 混同江에서 난다는 설명과 맞지 않다. 『本草拾遺』와 『一統志』의 설명이 다른 것을 말할 수도 있다.

147) 蘇頌 編撰, 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313.

148) 같은 내용이 『證類本草』, 『本草綱目』, 『本草備要』, 『本草從新』, 『本草求真』에도 보인다.

140) 같은 내용이 『本草蒙筌』, 『本草綱目』, 『本草從新』, 『本草備要』, 『本草求真』에도 보인다.

141) 같은 내용이 『證類本草』와 『本草品匯精要』에도 보인다.

142) 본조 문헌에서 寇氏는 주로 寇宗奭을 가리키는데 『本草衍義』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무엇을 인용한 것인지 모르겠다.

143)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760.

144)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459.

“格古論云 石琉璃出高麗，刀刮不動，色白，厚半寸許，可點燈，明於牛角者。”(本草綱目·金石部第八卷·琉璃)¹⁴⁹⁾

琉璃의 산지 중 하나로 高麗의 石琉璃를 언급했다. 칼로 긁어도 긁히지 않으며 白色에 반 치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47. 銀

“且銀所在皆有，而以虢州者爲勝，此外多錫穢爲劣。高麗作帖者，云非銀礦所出，然色青不如虢州者。又有黃銀，本草不載，俗云爲器辟惡，乃爲瑞物也。”(新修本草·卷第四·銀屑)¹⁵⁰⁾

“外有四種，新羅銀，波斯銀，林邑銀，雲南銀，並精好。”(本草綱目·金石部第八卷·銀)¹⁵¹⁾

『新修本草』에서는 虢州에서 나는 銀의 품질이 우수함을 말하고, 高麗의 글¹⁵²⁾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여 은광에서 나는 것이 아니며 青色으로 虢州의 것만 못하다고 했다. 高麗의 銀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나 ‘高麗作帖’을 인용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高麗 사람들 중 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³⁾

『本草綱目』은 외국에서 나는 4종의 銀을 기록했는데 그중 新羅銀이 보인다.¹⁵⁴⁾

48. 鷹背狗

“又遼東有鷹背狗，乃鷹產三卵，一鷹一鵝一犬也。”(本草綱目·獸部第五十卷·狗)¹⁵⁵⁾

遼東에 있는 鷹背狗를 언급했는데, “세 개의 알을 낳아 각각 鷹, 鵝, 犬이 된다.”고 하였다. 믿기 어려운 내용이며, 당시 사람들이 遼東의 산과 숲에 신비한 동물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¹⁵⁶⁾

49. 人蔘

人蔘에 관한 내용은 검색한 문헌의 대부분에 등장하며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모두 기재하지 않고 특징적인 내용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味甘，微寒，[微溫，無毒]……[如人形者有神.] 生[上黨]山谷[及遼東.] (上黨郡在冀州西南. 今魏國所獻即是，形長而黃，狀如防風，多潤實而甘. 世用不入服乃重百濟者，形細而堅白，氣味薄於上黨. 次用高麗，高麗即是遼東. 形大而虛軟，不及百濟. 百濟今臣屬高麗，高麗所獻，兼有兩種，止應擇取之爾.…… 高麗人作人蔘贊曰 三椹五葉，背陽向陰. 欲來求我，椹樹相尋. 椹樹葉似桐，甚大陰廣，則多生陰地，採作甚有法. 今近山亦有，但作之不好.)”(本草經集注·卷第二·人蔘)¹⁵⁷⁾

『名醫別錄』은 『神農本草經』 원문에 ‘生山谷’이라 한 것을 ‘生上黨山谷及遼東’으로 보충하였다. 陶弘景은 주석에서 세간에 百濟 人蔘을 중용하는데, 形이 가늘고 단단하며 색은 흰데 氣味가 上黨産에 비해 薄하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高麗産을 쓰는데 高麗란 곧 遼東이며 形이 크고 속이 비어있고 연하여 百濟의 것만 못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百濟, 高麗, 遼東은 초기 기록에서부터 人蔘의 주요 산지로 여겨졌다. 그뿐만 아니라 高麗産과 百濟産의 품질을 나누어 기록될 정도로 세밀하게 구분되었다.

또한 百濟가 高麗의 臣國이므로 高麗에서 들어온

149)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507.
150) 蘇敬等撰, 尚志鈞輯校. 新修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p.58.
151)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462.
152) 高麗作帖은 高麗 사람들이 수집으로 만들어 기록한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
153) 같은 내용이 『證類本草』와 『本草綱目』에도 보인다.
154) 같은 내용이 『本草匯言』에도 보인다.

15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715.
156) 같은 내용이 『本草乘雅半偈』에도 보인다.
157) 陶弘景編, 尚志鈞, 尚元勝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138-139.

人蔘은 百濟産과 高麗産이 섞여 있으니 잘 가려서 사용해야한다고 했는데, 중국과 지리적으로 접해있던 高句麗를 통해 百濟産과 高句麗産의 人蔘이 중국으로 유통된 정황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人蔘이 자라는 모양과 환경에 대한 高麗인의 詩를 인용하였는데, 人蔘의 생태에 대해 高麗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出新羅國，所貢又有手腳，狀如人形，長尺餘，以杉木夾定，紅線纏飾之。”(海藥本草·草部券第二·人蔘)¹⁵⁸⁾

“人蔘，生上黨山谷及遼東，今河東諸州及泰山皆有之。又有河北樞場及閩中來者，名新羅人蔘，然俱不及上黨者佳。”(本草圖經·草部卷第四·人蔘)¹⁵⁹⁾

“今之用者，皆河北樞場博易到，盡是高麗所出，率虛軟味薄，不若潞州上黨者味厚體實，用之有據。”(本草衍義·卷之七·人蔘)¹⁶⁰⁾

『海藥本草』에서는 인삼이 新羅에서 난다고 하였다. 또한 삼나무에 끼워서 고정하고 붉은 실로 묶는다고 했는데 운반하거나 거래할 때의 모양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本草圖經』에서는 河北의 樞場이나 閩中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新羅人蔘이라 한다고 하였다. 樞場은 宋代에 북방과 무역했던 시장을 말하고¹⁶¹⁾ 閩中은 현재의 중국 동남부를 가리키는 지명이다.¹⁶²⁾ 육로와 해로를 통한 인삼 무역을 의미한다고 생각되며, 여기서 유통되었던 것을 新羅人蔘이

라고 통칭했던 것이라 추측된다. 『本草衍義』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이는데 河北樞場에서 교류한 것은 모두 高麗에서 난 것이라 하였다.

“今注人蔘，見用多高麗，百濟者。潞州太行山所出，謂之紫團蔘，亦用焉。陶云俗用不入服，非也。臣禹錫等謹按藥性論云 人蔘，惡鹵鹹。生上黨郡，人形者上，次出海東新羅國，又出渤海。”(證類本草·草部第六券·人蔘)¹⁶³⁾

“紫團蔘 紫大稍扁，出潞州紫團山(屬山西)。白條蔘(俗呼羊角蔘) 白堅且圓，出邊外百濟國。(今臣屬高麗)。黃蔘，生遼東(遼東地名)，上黨(古郡名，在冀州西南)，黃潤有須梢纖長。高麗蔘(俗呼韃蔘) 近紫體虛。新羅(國名)蔘 亞黃味薄。並堪生治，須別粗良。”(本草蒙筌·卷第一·人蔘)¹⁶⁴⁾

『證類本草』는 禹錫 등의 말을 인용해 海東, 新羅國, 渤海에서도 人蔘이 난다고 말했다. 『本草蒙筌』은 이전 문헌들에 비해 人蔘의 종류를 보다 세분화하고 각각의 산지를 언급했다. 白條蔘은 희고 단단하며 등근데 百濟에서 나고, 黃蔘은 遼東과 上黨에서 나는데 황색에 윤기가 있으며 수염뿌리가 가늘고 길다. 高麗蔘은 韃蔘이라고도 하는데 紫色에 가까우며 속이 비었고, 新羅蔘은 얼은 황색에味が 없다고 하였다.

“上黨，今潞州也。民以人蔘爲地方害，不復採取。今所用者皆是遼蔘。其高麗，百濟，新羅三國，今皆屬於朝鮮矣。其蔘猶來中國互市。…… 遼蔘，連皮者，黃潤色如防風，去皮者，堅白如粉，僞者，皆以沙蔘，薺芘，桔梗採根造作亂之。”(本草綱目·草部第十二卷·人蔘)¹⁶⁵⁾

158) 李珣 原著，尚志鈞 輯校. 海藥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13.

159) 蘇頌 編撰，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92.

160) 寇宗奭 撰，常章富，黃幼羣 點校. 本草衍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8.

1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권1. pp.229-230.

162) 문화원형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17618&cid=50826&categoryId=50826)

163) 唐慎微 著，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153.

164) 陳嘉謨 撰，陸拯，趙法新 校點. 本草蒙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p.1.

“藥產古今不同。姑以人蔘言之，相傳皆稱上黨。往時皆用遼之清河，若上黨，則絕無矣。間有朝鮮者頗不適用，今則大率皆鮮產矣。”(本草乘雅半偈·本草乘雅凡例)¹⁶⁶⁾

『本草綱目』에서는 上黨蔘은 이제 다시 보기 어렵고 사용되는 것은 모두 遼蔘이며, (산지로 언급되는) 高麗, 百濟, 新羅는 지금은 모두 朝鮮에 속하는데, 朝鮮의 蔘은 여전히 중국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를 통해 李時珍이 활동할 당시 遼東과 朝鮮의 지역에서 나는 인삼을 遼蔘이라 통칭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遼蔘은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은 윤기 있는 황색이고 껍질을 벗기면 견고하고 흰 것이 粉과 같은데 沙蔘, 薺萆, 桔梗의 뿌리를 가자로 속여서 판다고 했다. 종합해볼 때 당시 중국 내에서 人蔘의 產地로 초기부터 언급되었던 上黨 人蔘은 거의 찾을 수 없고 대부분 朝鮮産이 유통되었으며, 높은 가격 때문에 가짜 인삼을 파는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本草乘雅半偈』에서 역시 上黨産은 전혀 없고 사용되는 것은 朝鮮産인데, 쓰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여 朝鮮 人蔘만 유통되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壽頤按 古稱人蔘，今有遼蔘，高麗蔘，黨蔘之別，形色，性情，功效各有不同，而古今醫藥諸書，則皆以人蔘兩字統言之，不獨古之本草，未聞辨析也。……蓋遼蔘，高麗蔘其力皆厚，唯一則甘而能清，一則甘而兼溫，功用自別。”(本草正義·卷之一·人蔘)¹⁶⁷⁾

“高麗蔘產於朝鮮，古之高麗，百濟，新羅皆是也。”(本草正義·卷之一·高麗蔘)¹⁶⁸⁾

『本草正義』는 人蔘의 종류와 효능에 대해 가장 자세히 다룬 문헌 중 하나이다. 張壽頤는 예전에 人蔘이라고 하던 것은 지금의 遼蔘, 高麗蔘, 黨蔘이며 그 형색, 성질, 효능이 각기 다르다고 하였다. 특히 遼蔘과 高麗蔘을 구분한 점이 눈에 띈다. 高麗蔘은 예전에 高麗, 百濟, 新羅라고 했던 朝鮮에서 난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한반도에서 나는 人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遼蔘은 한반도 이북과 遼東에서 나는 것을 가리킨 것으로 생각된다. 그 효능도 遼蔘은 淸하며 高麗蔘은 溫을 겸한다고 대비하였다.

“汪玉于言 東洋蔘出日本東倭地，其蔘外皮糙中油，熟蒸之，亦清香，與遼蔘味同，微帶羊膻氣，入口後微辣，爲各別耳。然性溫平，與西洋佛蘭蔘性寒平者又別，此蔘近日頗行，無力之家，以之代遼蔘用亦有效。……又一種東洋蔘，出高麗新羅一帶山島，與關東接壤，其蔘與遼蔘真相似，氣亦同，但微薄耳。”(本草綱目拾遺·卷三·東洋蔘)¹⁶⁹⁾

“今之所謂東洋蔘者，其形與高麗蔘甚似，惟色較淡，質較鬆，味亦較薄。……故遇有肺胃虛寒，而津液枯槁者，以此代遼蔘之用，然氣味薄弱，更不如潞黨蔘之有力也。”(本草正義·卷之一·東洋蔘)¹⁷⁰⁾

『本草綱目拾遺』에서 東洋蔘은 日本에서 나는데, 高麗와 新羅의 山島에서도 일부 나온다고 하였다. 그 모양이 遼蔘과 매우 비슷하고 氣도 같지만 약간 엷은 것으로 보았다. 『本草正義』에서는 東洋蔘이 高麗蔘과 매우 비슷하지만 色, 質, 味에 차이가 있으며, 肺胃가 虛寒하고 津液이 마를 때에는 遼蔘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대 문헌에서는 이처럼 여러 종류의 人蔘을 비교하는 설명이 많이 나타나며, 그때마다 遼蔘과 高麗蔘이 기준이 되었음을 볼 수 있다.

16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701.
166) 盧之頤 著, 冷方南, 王齊南 校點.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27.
167) 張壽頤 原著, 안세영, 김순일 編譯. 本草正義. 서울. 청홍(지상사). 2011. p.45, 47.
168) 張壽頤 原著, 안세영, 김순일 編譯. 本草正義. 서울. 청홍(지상사). 2011. p.53.

169) 趙學敏 著, 閔志安, 蕭培新 校註. 本草綱目拾遺.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7. p.60.
170) 張壽頤 原著, 안세영, 김순일 編譯. 本草正義. 서울. 청홍(지상사). 2011. p.65.

“人蔘，一名神草，一名地精。春秋運斗樞云，瑤光星散，而為人蔘。生上黨山谷，遼東，幽冀諸州，地土最厚處，故有地精之名。”(本草崇原·卷上·人蔘)¹⁷¹⁾

“地當東海之濱，稟東方發生之氣，故具氣味濃厚，色亦重濁，具有溫養生發之性。”(本草正義·卷之一·高麗蔘)¹⁷²⁾

“問曰 人蔘不生於東南，而生於北方。古生上黨，今生遼東，高麗，皆北方也。此何以故。答曰 此正人蔘所由生之理，不究及此，尚難得人蔘之真性也。蓋北方屬水，於卦為坎，坎卦外陰而內陽。人蔘生於北方，正是陰中之陽也。”(本草問答·卷上)¹⁷³⁾

위의 내용들은 우리나라 人蔘의 품질이 우수한 까닭을 설명한 경우이다. 『本草崇原』은 上黨, 遼東 등은 모두 地氣가 가장 두터운 곳이라고 하였다. 『本草正義』에서는 高麗蔘이 나는 곳이 東方의 發生之氣를 받아 氣味の 두텁고 溫養, 生發하는 성질을 갖추었다고 보았다. 『本草問答』은 人蔘이 坎卦 內의 陽의 이치를 갖추었으므로 上黨, 遼東, 高麗와 같은 北方에서 난다고 설명했다.

50. 林檎

“藏器曰 文林郎生渤海間。云其樹從河中浮來，有文林郎拾得種之，因以爲名。”(本草綱目·果部第三十卷·林檎)¹⁷⁴⁾

『本草拾遺』의 설을 인용한 것이다. 林檎은 文林郎이라고도 하는데, 渤海 주변에 자란다. 文林郎이라는 관직명이 별명으로 붙은 것은 나무가 강물에 떠내려 오는 것을 文林郎이 주워서 심었기 때문이라 하였다.¹⁷⁵⁾

171) 張志聰 著, 鄭林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張志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95.
172) 張壽頤 原著, 안세영, 김순일 編譯. 本草正義. 서울. 청홍(지상사). 2011. p.53.
173) 唐宗海 著, 王咪咪, 李林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唐宗海).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p.534.
174)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777.

51. 赤銅

“寶藏論云 赤金一十種 丹陽銅，武昌白慢銅，一生銅，生銀銅，皆不出陶冶而生者，無毒，宜作鼎器。波斯青銅，可爲鏡。新羅銅，可作鐘。”(本草綱目·金石部第八卷·赤銅)¹⁷⁶⁾

銅의 생산지 중 新羅가 언급되었으며 新羅銅은 鐘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52. 井泉水

“子因悟曰 天下之水，用之滅火則同，濡槁則同，至於性從地變，質與物遷，未嘗同也。故蜀江濯錦則鮮，濟源烹楮則鼎。南陽之潭漸於菊，其人多壽，遼東之澗通於蔘，其人多髮。”(本草綱目·水部第五卷·井泉水)¹⁷⁷⁾

지역에 따른 우물물의 특성과 효능을 설명했다. 遼東의 골짜기 물은 人蔘에 통하여 그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많다고 하였다.¹⁷⁸⁾

53. 鯀魚

“又徂異記云 查奉道¹⁷⁹⁾使高麗，見海沙中一婦人，肘後有紅鬚。問之。曰人魚也。此二者乃名同物異非鯀，鮫也。”(本草綱目·鱗部第四十四卷·鯀魚)¹⁸⁰⁾

『徂異記』를 인용한 것으로 高麗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바닷가 모래에서 人魚를 만났다는 설화를 기록한 것이다.

54. 雕(鵬)

175) 같은 내용이 『本草品匯精要』에도 보인다.
176)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465.
17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398.
178) 같은 내용이 『本草述鉤元』에도 보인다.
179) ‘奉道’는 관본에 따라 ‘道奉’으로 기록된 경우가 있다.
18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462.

“[地] 皂雕即鷺也，出北地。青雕出遼東，羌鷺出西南夷。”(本草品匯精要)¹⁸¹⁾

“皂鷺即鷺也，出北地，色皂。青雕出遼東，最後者謂之海東青。羌鷺出西南夷，黃頭赤目，五色皆備。”(本草綱目·禽部第四十九卷·鷺)¹⁸²⁾

『本草品匯精要』는 독수리의 종류를 나열하였으며 그중 青雕는 遼東에서 난다고 하였다. 『本草綱目』은 青雕 중 가장 뛰어난 것을 ‘海東青’이라 한다고 하였다.¹⁸³⁾

55. 蜘蛛

“揚雄方言云 自關而東呼爲蠙蜎，侏儒語轉也。北燕朝鮮之間謂之蠙蜎，齊人又呼爲杜公，蝓蜎見下。”(本草綱目·蟲部第四十卷·蜘蛛)¹⁸⁴⁾

『方言』을 인용해 北燕과 朝鮮의 지역에서는 蜘蛛를 ‘蠙蜎’라 부른다고 했다.

56. 榛, 榛子

“味甘，平，無毒。主益氣力，寬腸胃，令人不肌，健行。生遼東山谷。樹高丈許，子如小栗，軍行食之當糧，中土亦有。鄭注禮云，榛似栗而小，關中廊坊甚多(今附)。臣禹錫等謹按日華子云 新羅榛子肥白，人止飢，調中開胃甚驗。”(證類本草·果部卷二十三·榛子)¹⁸⁵⁾

“圖經曰 生遼東山谷，及桂陽，新羅，關中，廊坊皆有之。”(本草品匯精要·卷之三十四·榛子)¹⁸⁶⁾

“志曰 榛生遼東山谷。樹高丈許。子如小栗，軍行食之當糧。中土亦有。鄭玄云 關中，廊坊甚多…… 大明曰 新羅榛子肥白，最良。”(本草綱目·果部第三十卷·榛)¹⁸⁷⁾

『證類本草』에서는 榛子が 遼東의 山谷에서 나는 데 작은 밤과 비슷해서 균형이 있을 때 식량으로 쓰기에 좋다고 하였다. 또한 日華子가 “新羅의 榛子是 살이 많고 흰데, 배고픔을 그치게 하며 調中開胃하는 효험이 매우 좋다.”라고 한 것을 인용했다. 『本草品匯精要』와 『本草綱目』에서도 遼東과 新羅를 榛子の 產地로 설명했다.

57. 甜瓜

“廣志惟以遼東，敦煌，廬江之瓜爲勝。然瓜州之大瓜，陽城之御瓜，西蜀之溫瓜，永嘉之寒瓜，未可以優劣論也。”(本草綱目·果部第三十三卷·甜瓜)¹⁸⁸⁾

『本草綱目』은 『廣志』를 인용해 여러 종류의 甜瓜 중 遼東, 敦煌, 廬江에서 나온 것이 가장 우수하다고 했다.¹⁸⁹⁾

58. 貂鼠

“[釋名] 栗鼠(爾雅翼)，松狗。此鼠好食栗及松皮，夷人呼爲栗鼠，松狗。[集解] 時珍曰 按許慎說文云 貂，鼠屬，大而黃黑色，出丁零國。今遼東，高麗，及女直，靺鞨諸胡皆有之。”(本草綱目·獸部第五十一卷·貂鼠)¹⁹⁰⁾

『本草綱目』에서는 夷인들이 담비(貂鼠)를 ‘栗鼠’, ‘松狗’라 부른다고 하였다. 또한 『說文解字』를 인용해 遼東, 高麗, 女直 등에서 난다고 하였다.¹⁹¹⁾

181) 中華醫典(第五版). 湖南電子音像出版社. 長沙市. 2014.
182)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673.
183) 일반적으로 海東靑은 우리나라에서 사냥용으로 키우던 매를 가리키며 雕나 鷺와는 다르다.
184)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276.
185) 唐慎微 著, 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661.
186) 劉文泰 等 纂修, 曹暉 校註. 本草品匯精要. 北京. 華夏出

版社. 2004. p.575.
18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808.
188)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1879.
189) 같은 내용이 『本草乘雅半偈』, 『本草匯言』에도 보인다.
19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910.

59. 縮沙蜜(砂仁)

“今按陳氏，生西海及西戎諸地。味辛，平，鹹。得訶子，鱉甲，豆蔻，白蕪荑等良。多從安東道來。”(海藥本草·草部卷第二·縮沙蜜)¹⁹²⁾

“陶曰縮砂蜜，生西海及西戎等地，波斯諸國。多從安東道來。志曰生南地。”(本草綱目·草部第十四卷·縮砂蜜)¹⁹³⁾

『海藥本草』는 陳藏器的 말을 인용해 縮沙蜜이 西海와 西戎에서 나며 安東道を 따라 온다고 말했다. 『證類本草』와 『本草綱目』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이는데, 『本草綱目』에는 서쪽 지역에 波斯(페르시아)가 추가되었으며, 馬志의 말을 인용해 남쪽 지방에서 난다고 했다. 安東道는 遼東 지역을 가리키는데, 서역과 남방의 物産이 뱃길을 따라 온 것이 遼東을 통해 중국으로 수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60. 菟絲子

“[一名菟縷，一名蘆蒙，一名玉女，一名赤網，一名菟累.] 生[朝鮮]川澤[田野，蔓延草木之上，色黃而細爲赤網，色淺而大爲菟累.]”(本草經集注·卷第三·菟絲子)¹⁹⁴⁾

“生朝鮮川澤田野，今近京亦有之，以冤句者爲勝。”(本草圖經·草部卷第四·菟絲子)¹⁹⁵⁾

“始出朝鮮川澤田野，蓋稟水陰之氣，從東方而生，今處處有之。”(本草崇原·卷上·菟絲子)¹⁹⁶⁾

『名醫別錄』은 菟絲子가 朝鮮의 밭과 들에서 난다고 하였다.¹⁹⁷⁾ 『本草圖經』 역시 朝鮮을 產地로 말했지만 “지금은 수도 가까운 곳에도 있으며, 冤句에서 난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여 당시에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것을 上品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本草崇原』은 朝鮮을 菟絲子의 원산지로 보았으며, 水陰之氣를 받아 東方으로부터 생하기 때문에 설명했다.

61. 豹

“時珍曰豹，遼東及西南諸山時有之。狀似虎而小，白面團頭，自惜其毛采。”(本草綱目·獸部第五十一卷·豹)¹⁹⁸⁾

豹가 遼東과 西南의 산들에 있다고 말했다. 생김새는 호랑이와 비슷하지만 작고 얼굴의 희고 머리가 둥글다고 했는데 조선표범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¹⁹⁹⁾

62. 蝦醬

“宦遊筆記，遼東大凌河出蝦醬，蝦油，皆甘美。平海又出一種小蝦，名紅毛子，作蝦醬尤佳。今浙江寧波及蘇，皆有蝦醬，味亦佳。”(本草綱目拾遺·卷十·蝦醬)²⁰⁰⁾

『宦遊筆記』를 인용해 遼東의 大凌河에서 새우젓(蝦醬)과 새우기름(蝦油)이 난다고 말했다.

63. 合新木

“[味辛，平，無毒。解心煩，止瘡痛。生遼東.]”(本草經集注·卷第七·合新木)²⁰¹⁾

191) 같은 내용이 『本草品匯精要』에도 보인다.

192) 李珣 原著，尚志鈞 輯校. 海藥本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29.

193)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868.

194) 陶弘景 編，尚志鈞，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235.

195) 蘇頌 編撰，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p.113.

196) 張志聰 著，鄭林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張志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05.

197) 같은 내용이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蒙筌』, 『本草乘雅半偈』, 『本草匯言』에도 보인다.

198)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824.

199) EBS 미디어센터. 두만강의 조선 표범 그 외로운 생존 [미디어 녹화자료]. 서울. 1998.

200) 趙學敏 著，閔志安，蕭培新 校註. 本草綱目拾遺.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7. p.404.

201) 陶弘景 編，尚志鈞，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534.

合新木이 遼東에서 난다고 하였다. 이후로 많은本草書들이 이를 기록했으나²⁰²⁾ 『名醫別錄』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무엇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合新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알지 못했으며, 약재로도 더 이상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64. 海蔘

“百草鏡云……入滋補陰分藥，必須用遼東產者，亦可熬膏作膠用……蓬萊李金什言海蔘亦出登州海中，與遼東接壤，所產海蔘亦佳……五雜俎 海蔘，遼東海濱有之，一名海男子，其狀如男子勢然，淡菜之對也。”(本草綱目拾遺·卷十·海蔘)²⁰³⁾

“土人以爲珍饈，土司餉貴客，必向各峒丁索取此蟲作供，連棕木數尺解送，剖木取之，作羹味絕鮮美，肉亦堅韌而腴，絕似遼東海蔘。”(本草綱目拾遺·卷十·棕蟲)²⁰⁴⁾

여러 문헌을 인용해 海蔘의 산지와 복용방법 등을 설명했다. 『百草鏡』에서는 陰分을 보하는 약에 넣을 때는 반드시 遼東產을 쓰는데 북거나 고아서 膠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李金什은 遼東의 접경 지역에서 나는 海蔘도 좋다고 말했고, 『五雜俎』에서는 遼東의 해안가에 있으며 ‘海男子’라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棕蟲」의 내용은 棕蟲에 대해 말한 것인데 모양이 遼東 海蔘과 매우 비슷하다고 하였다.

65. 海藻

“味苦，[鹹]，寒，[無毒]……生[東海]池澤。[七月七日采，曝幹。]反甘草。(生海島上，黑色如亂髮而大少許，葉大都似藻葉

……)”(神農本草經集注·卷第四·海藻)²⁰⁵⁾

“今按陳藏器本草云 此物有馬尾者，大而有葉者。本經及注，海藻功狀不分。馬尾藻，生淺水，如短馬尾細黑色，用之當浸去鹹。大葉藻生深海中及新羅，葉如水藻而大。”(證類本草·草部第九卷·海藻)²⁰⁶⁾

“……陶云出新羅，黃黑色，葉柔細。陶解昆布，乃是馬尾海藻也。”(證類本草·草部第九卷·昆布)²⁰⁷⁾

『名醫別錄』에서는 海藻가 東海地澤에서 난다고 했고, 陶弘景은 海島上에서 난다고 주석했다.²⁰⁸⁾

『證類本草』에서는 陳藏器의 말을 인용해 海藻에는 馬尾藻와 大葉藻가 있으며 그중 大葉藻는 심해나 新羅에서 생산되며 잎이 水藻와 같은데 크다고 말했다. 「第九卷·昆布」에서는 다시 陳藏器를 인용해 “陶는 (昆布가) 新羅에서 나고 黃黑色이며 잎이 가늘다고 했는데 陶가 설명한 昆布는 馬尾海藻이다.”라고 하였다.²⁰⁹⁾ 이처럼 살펴본 昆布와 海藻의 내용 중에는 이들의 색, 형태, 산지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설도 분분하다. 해조류의 형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데다가 여러 종류에 대한 설명이 뒤섞여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6. 狐

“時珍曰 狐南北皆有之，北方最多……山海經云 青丘之山，有狐九尾，能食人，食

202) 같은 내용이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 『本草綱目拾遺』에 모두 보인다.

203) 趙學敏 著, 閔志安, 蕭培新 校註. 本草綱目拾遺.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7. p.406, 407.

204) 趙學敏 著, 閔志安, 蕭培新 校註. 本草綱目拾遺.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7. p.422.

205)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pp.318-319.

206) 唐慎微 著, 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268.

207) 唐慎微 著, 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p.270.

208) 같은 내용이 『新修本草』, 『本草圖經』,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 『本草蒙筌』, 『本草乘雅半偈』, 『本草匯言』, 『本草備要』, 『本草崇原』에도 보인다.

209)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出新羅, 黃黑色, 葉柔細.”라 한 것은 『海藥本草』(李珣)의 설명이며 『本草經集注』의 설명에 보이지 않는데 ‘陶云’이라 한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다.

之不蠱。”(本草綱目·獸部第五十一卷·狐)²¹⁰⁾

여우(狐)는 北方에 가장 많은데 『山海經』에서는 靑丘²¹¹⁾의 山에 九尾狐가 살아서 사람을 먹을 수도 있으며 이것을 먹으면 蠱病을 앓지 않는다고 말했다.

67. 琥珀

“按曹昭格古論云 琥珀出西番，南番，乃楓木津液多年所化。色黃而明瑩者名蠟珀，色若松香紅而且黃者名明珀，有香者名香珀，出高麗，倭國者色深紅。”(本草綱目·木部第三十七卷·琥珀)²¹²⁾

“覈曰 出永昌，舶上，西戎，高麗，倭國者良。即松樹榮盛時，流脂入土，千歲後，淪結所成也。”(本草乘雅半偈·第八帙·琥珀)²¹³⁾

“寇氏曰 今西戎，高麗，海南諸倭國皆有。即松木榮盛時，脂流入土，千歲淪結所成也。”(本草匯言·卷之十一·琥珀)²¹⁴⁾

『本草綱目』에서는 琥珀의 종류 중 高麗와 倭國에서 나온 것은 색이 매우 붉다고 하였다. 『本草乘雅半偈』에도 품질이 좋은 琥珀의 產地 중 高麗를 언급한 것이 보인다. 『本草匯言』은 寇氏가 高麗를 產地로 언급한 것을 인용하면서, 소나무가 번성했을 때 松脂가 땅으로 흘러들어가 오랫동안 맺혀 생겼기라 하였다. 琥珀의 產地는 소나무가 자라는 곳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10)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878.

211) 우리나라를 부르는 별칭으로 『三國遺事』, 『三國史記』 등에서 우리나라를 靑丘라 부른 것이 보인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2권). 서울.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p.88.)

212)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153.

213) 盧之頤 著, 冷方南, 王齊南 校點.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460.

214) 倪朱謨 編著, 戴嶺 外 4人 點校. 本草匯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p.684.

68. 樺木

“時珍曰 樺木生遼東及臨洮，河州，西北諸地。其木色黃，有小斑點紅色，能收肥膩。”(本草綱目·木部第三十五卷·樺木)²¹⁵⁾

樺木이 遼東을 비롯해 西北의 여러 곳에서 나는데, 나무는 황색으로 붉고 작은 반점이 있으며, 기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²¹⁶⁾

69. 獾

“時珍曰 獾，猪獾也，獾，狗獾也，二種相似而略殊。狗獾似小狗而肥，尖喙矮足，短尾深毛，褐色。皮可爲裘領。亦食蟲蟻瓜果。又遼東，女直地面有海獾，皮可供衣裳，亦此類也。”(本草綱目·獸部第五十一卷·獾)²¹⁷⁾

오소리(獾)의 종류 중 요동과 여진에는 海獾이 있으며, 그 가죽을 옷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70. 기타

검색 결과 중에는 우리나라와의 연관성을 분명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東人’이 속한 문장은 대부분 東인들이 부르는 異名, 혹은 특이한 복용법과 사용법을 설명한 것이다. ‘東海’가 속한 문장은 대부분 바다 주변에서 나는 약물의 산지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東人’과 ‘東海’는 가리키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검색된 내용만으로 우리나라와의 관련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 중에 확정할 수 없었던 것들은 본초의 이름과 수록된 書名만 기록하였다.

‘東人’으로 검색된 본초는 苦菜²¹⁸⁾, 女貞²¹⁹⁾, 蘿

21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047.

216) 같은 내용이 『本草匯言』에도 보이는데 陳氏의 말로 기록되어있다.

217)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p.2883.

218) 『本草經集注』, 『新修本草』에 보인다.

219) 『本草綱目』에 보인다.

藤220), 敗芒箔221), 木蘭222), 蠶退223), 白英224), 酸棗225), 旋花226), 粟米227), 皇蠶228), 蚌蛇膽229), 牛舌實230), 荏子231), 皇蠶232), 蒲扇233), 海蛤234), 萱草235) 등이 있다.

‘東海’로 검색된 본초는 伽備香236), 菴菌237), 魁蛤238), 淡菜239), 大棗240), 大紅蝦241), 桃符242), 牡蠣243), 木香244), 馬刀245), 文鰐魚246), 文蛤247), 蚌蛤248), 檳榔249), 師草250), 蛇婆251), 山茱萸252), 犀

角253), 石蠟254), 石龍芻255), 石硫黃256), 石首魚257), 鳶頭(鳶尾)258), 鹽259), 烏賊魚骨260)(海螵蛸)261), 鱸魚262), 禹餘糧263), 丁香264), 秦椒265), 紫貝266), 蜀椒267), 鱈魚268), 貝子269), 蠟蚩270), 蛤蜊271), 海帶272), 海鰻鱧273), 海燕274), 海鰐魚275), 海牛276), 海蛇(蠟)277), 海蛤278), 虹蟲279) 등이 있다.

- 220) 『證類本草』, 『本草綱目』, 『本草匯言』에 보인다.
- 221) 『證類本草』, 『本草綱目』에 보인다.
- 222) 『本草經集注』,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23) 『證類本草』, 『本草蒙筌』에 보인다.
- 224)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25) 『本草經集注』,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綱目』에 보인다.
- 226) 『本草經集注』,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綱目』에 보인다.
- 227) 『本草品匯精要』에 보인다.
- 228)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에 보인다.
- 229) 『本草圖經』, 『證類本草』, 『本草綱目』에 보인다.
- 230) 『證類本草』, 『本草綱目』에 보인다.
- 231) 『本草經集注』에 보인다.
- 232)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에 보인다.
- 233) 『本草綱目』에 보인다.
- 234) 『新修本草』에 보인다.
- 235) 『本草綱目』, 『本草求真』에 보인다.
- 236) 『本草綱目拾遺』에 보인다.
- 237) 『名醫別錄』, 『神農本草經集注』,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綱目』, 『本草品匯精要』에 보인다.
- 238) 『名醫別錄』, 『神農本草經集注』,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39)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40) 『本草乘雅半偈』, 『本草蒙筌』에 보인다.
- 241) 『本草蒙筌』에 보인다.
- 242)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43) 『名醫別錄』, 『神農本草經集注』, 『新修本草』, 『本草圖經』,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 『本草乘雅半偈』, 『本草匯言』에 보인다.
- 244) 『海藥本草』에 보인다.
- 245) 『名醫別錄』, 『神農本草經集注』, 『新修本草』, 『本草圖經』,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46) 『本草綱目』에 보인다.
- 247) 『名醫別錄』, 『神農本草經集注』, 『新修本草』,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蒙筌』, 『本草綱目』, 『本草乘雅半偈』, 『本草崇原』에 보인다.
- 248) 『本草品匯精要』에 보인다.
- 249)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에 보인다.

- 250)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 『本草從新』에 보인다.
- 251)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52) 『名醫別錄』, 『神農本草經集注』, 『吳普本草』, 『新修本草』, 『本草圖經』,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53) 『海藥本草』, 『證類本草』, 『本草綱目』, 『本草乘雅半偈』, 『本草匯言』에 보인다.
- 254)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55) 『本草綱目』에 보인다.
- 256) 『名醫別錄』, 『本草經集注』, 『新修本草』, 『本草圖經』,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 『本草乘雅半偈』, 『本草匯言』, 『本草崇原』에 보인다.
- 257) 『本草品匯精要』에 보인다.
- 258) 『本草綱目』, 『本經逢原』에 보인다.
- 259) 『本草經集注』,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60) 『名醫別錄』, 『神農本草經集注』, 『新修本草』, 『本草圖經』, 『證類本草』, 『本草綱目』, 『本草匯言』에 보인다.
- 261) 『本草備要』, 『本草害利』에 보인다.
- 262)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食療本草』에 보인다.
- 263) 『名醫別錄』, 『神農本草經集注』, 『新修本草』, 『本草圖經』,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 『本草乘雅半偈』, 『本草易讀』, 『本草匯言』, 『本草崇原』, 『本草述鈞元』에 보인다.
- 264) 『海藥本草』,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 『本草乘雅半偈』, 『本草易讀』, 『本草匯言』에 보인다.
- 265) 『本草圖經』에 보인다.
- 266) 『新修本草』, 『本草圖經』,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67) 『證類本草』에 보인다.
- 268) 『本草綱目』에 보인다.
- 269) 『名醫別錄』, 『神農本草經集注』, 『本草圖經』,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70) 『本草綱目』에 보인다.
- 271) 『本草品匯精要』에 보인다.
- 272)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 『本草易讀』, 『本草匯言』, 『本草正義』에 보인다.
- 273) 『本草綱目』에 보인다.
- 274)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75) 『證類本草』, 『本草品匯精要』, 『本草綱目』에 보인다.
- 276) 『本草綱目拾遺』에 보인다.
- 277) 『證類本草』, 『本草蒙筌』, 『本草綱目』, 『本草求真』에 보인다.
- 278) 『神農本草經贊』에 보인다.

특이한 예로 於朮(白朮)은 ‘産縣後山脈, 及黃塘至遼東橋一帶’라 하여²⁸⁰⁾ 遼東橋라는 명칭이 언급되었는데 현재는 그 위치를 알기 어렵다. 검색 결과 黃塘은 중국 남부의 地名인데 어떤 연유로 遼東橋라는 명칭이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다. 다른 문헌에는 이를 언급한 바 없다.

Ⅲ. 考察

본론에서 중국 본초서들에 실린 우리나라 본초를 정리하였다. 고찰에서는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들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본초들의 특징과 산지로 표현된 지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1. 중국 본초서에 언급된 우리나라 본초의 특징

중국 본초학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본초는 모두 외국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기록한 것은 중국 본토의 약물과 어떠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본초보다 효능이 뛰어나거나, 비슷하지만 생김새나 효능이 다르거나, 혹은 중국에서 볼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본 단락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본초의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

(1) 우수한 품질의 본초

검토한 本草書들에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우리나라 本草로는 鷄(丹雄鷄), 昆布, 款冬花, 大麻子, 桃仁, 蕪荑, 白附子, 沙蔘, 細辛, 松子, 海松子, 蘭茹, 五味子, 臘朮臍, 人蔘, 榛子, 牻瓜, 菟絲子, 海蔘, 琥珀 등이 있었다. 이들 중 다수는 『名醫別錄』, 『神農本草經集注』와 같이 초기 문헌에서부터 언급되었으며 후대 문헌들도 대부분 우리나라를 원산지나

원산지 중 하나로 소개하였다. 예를 들어 鷄는 『名醫別錄』에 朝鮮에서 난다고 했고 昆布는 陶弘景注에 오직 高麗에서 난다고 말했는데, 후대의 문헌들이 모두 이를 따랐다. 蕪荑, 細辛, 蘭茹, 白附子, 人蔘, 菟絲子도 비슷한 경우이다.

우리나라 본초의 품질을 우수하다고 평가한 경우 중에는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도 보이는데, 그것들을 근거로 良品으로 평가된 우리나라 본초의 특징은 무엇인지 추론해 보고자 한다.

① 東北의 方位

上品으로 기록된 몇몇 本草들의 효능은 方位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張壽頤는 高麗蔘이 東方의 發生之氣를 받아 溫養과 生發의 성질을 갖추었다고 보았고, 唐宗海는 人蔘이 坎卦 가운데 위치한 陽爻의 이치를 갖추었으므로 北方 지역에서 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張志聰은 菟絲子が 朝鮮의 川澤田野에서 처음 나왔는데 水陰之氣를 받아 東方으로부터 생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본초도 있다. 닭은 아침을 깨우는 동물로서 東方의 發生之氣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으며, 닭 중에도 붉은 수탉(丹雄鷄)을 사용하여 陽氣를 강조하였다. 款冬花가 겨울에 얼음 아래에서 꽃을 피우고, 十二月과 正月의 아침에 채취한다는 점 역시 東北이라는 방위 속성과 부합한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본초들 중에는 東夷靑金, 海東靑, 靑雕처럼 이름에 東方을 나타내는 ‘靑’이 포함된 경우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산물의 속성과 약물로서의 효능은 모두 陽氣의 升發과 관련된다. 이는 陽氣가 始生하는 方位, 즉 東北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속성과 부합하며, 때문에 다양한 지역에서 나는 본초들 중 우리나라의 산품을 上品으로 여겼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② 소나무와 관련된 본초

소나무와 관련된 본초들도 우리나라, 특히 新羅

279) 『本草綱目拾遺』에 보인다.

280) 趙學敏 著, 閔志安, 蕭培新 校註. 本草綱目拾遺.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7. p.67. “據土人言 産縣後山脈, 及黃塘至遼東橋一帶, 西流水四十裏地之術, 方有朱砂點, 他處則無.”(本草綱目拾遺·卷三·於朮)

가 좋은 품질의 산지로 기록되었다. 松子, 海松子是 소나무의 씨앗이며 琥珀은 松脂가 맺혀 형성된 것이므로 이들의 품질은 소나무의 품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上品으로 소개된 것은 아니나 소나무를 태우는 과정에서 생긴 그을음을 재료로 삼는 墨, 오래된 소나무 아래서 채집하는 茯苓에 대한 설명에도 高麗와 東人이 언급되었다. 소나무는 한반도 전역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樹種이며, 소나무의 생장에 적합한 한반도의 기후와 토질로 인해 소나무와 관련한 좋은 품질의 산물들이 많이 나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③ 한반도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

우리나라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바다와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昆布, 臘朮, 海參과 같은 좋은 해산물의 나는 곳으로도 소개되었다. 또한 上品으로 취급되지는 않았으나 蜈蚣, 野馬와 같이 산에 사는 동물들이 언급된 것은 전국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과 관련된다 볼 수 있다.

五味子라는 이름은 다섯 가지 맛이 난다는 의미인데, 五味를 모두 가졌다는 것은 五行의 속성을 두루 갖추었음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어느 하나의 계절에 치우치지 않는 기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五味를 골고루 갖춘 五味子가 생산되기에 좋은 기후 환경이라 볼 수 있다.

(2) 중국과 다른 본초

우리나라에서 나는 본초 중에는 上品이라 하지는 않았으나 중국의 본초와 달라 기록된 경우가 많다. 이는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른 품종을 설명한 경우, 부르는 명칭이 다른 경우, 활용법이 다른 경우, 다른 산지 중 하나로 기록된 경우 등이 있다.

다른 품종을 말한 경우로는 茄, 豚, 烏頭, 琉璃, 青雉, 井泉水, 海藻 등이 있다. 중국 품종과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한 색, 모양, 맛 등을 주로 설명했으며 遼東의 烏頭처럼 사용처를 구별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본초의 이름이 다른 경우는 東夷, 東人, 遼東과

같이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 ‘~라 부른다.’라고 소개했거나, 중국에서 활용되는 본초 중 우리나라의 지명이 포함된 異名을 가진 것들이다. 假蘇(新羅荊芥), 鷺(白鷺), 豚(豕), 薄荷(新羅薄荷, 新羅菝葜), 蜘蛛(蟠蛛), 貂鼠(栗鼠, 松狗) 등이 이에 속한다.

중국과 다른 활용법을 설명한 경우로는 擔羅, 牛骨, 蝦醬, 獾이 있다. 擔羅는 조개류의 하나인데, 新羅에서 자라며 新羅인들이 昆布와 함께 국으로 먹는다 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장 좋은 昆布의 산지는 高麗와 新羅이다. 牛骨은 東夷들이 짐을 치거나 약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遼東에서는 민물 새우를 새우젓(蝦醬), 새우 기름(蝦油)으로 만들었고, 오소리(獾) 가죽으로 옷을 만든다고 하였다. 해조류와 조개를 넣고 끓이는 국, 牛骨, 새우젓 등은 지금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음식인데, 이러한 음식문화가 오래전부터 중국에 알려졌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산지 중 하나로 기록된 경우는 광물이 대표적이다. 金(金屑), 銀, 寶石, 玉, 赤銅에서 우리나라가 산지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색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별다른 설명이 없다. 그 외에도 鵠, 菊花, 欒荊, 馬陸, 石腦油, 野馬, 梁, 蜈蚣, 貂鼠, 刀豆, 馬陸 등이 있다.

(3) 중국에서 나지 않는 본초

綠益子, 茶朮子, 北雲朮, 鱒魚, 鷹背狗, 鱒魚, 合新木은 遼東을 제외한 다른 산지가 설명되지 않았다. 주로 『本草綱目』과 『本草綱目拾遺』에 많이 소개되었는데, 변방의 기록들을 인용하거나 전해들은 것을 채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설명 중에는 설화나 전설적인 이야기,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동식물에 관한 내용들이 다수 보인다. 아마도 遼東의 깊은 山谷에 중국인들이 모르는 신비한 생물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상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本草는 식물뿐 아니라 광물, 동물, 해산물 등 다양한 본초 분야에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그중 일부는 현재 한반도 남부로 한정할 때 부합하지 않거나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본초를 규정하는 시

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중국 본초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地名의 특징

연구에 활용한 검색어 중 한번 이상 등장한 것은 朝鮮, 高麗, 百濟, 新羅, 渤海, 遼東, 夫余, 靑丘, 玄菟, 樂浪, 安東, 東海, 海東, 東夷, 東人이다. 本草의 產地에 관한 것 외에도 관련된 설화, 명칭의 유래, 수입 경로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地名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國名 중 가장 많이 쓰인 것은 高麗, 新羅, 朝鮮, 百濟이다. 저술 시기로 판단할 때 朝鮮은 古朝鮮, 高麗는 高句麗를 뜻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문헌들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데, 선대의 문헌을 인용하면서 옛 이름을 그대로 옮겼거나,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약재를 줄곧 唐藥이라고 부른 것처럼 한반도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宋代 이후로는 이를 구별하기 위해 高麗國이라 하거나 朝鮮에 '國名'이라고 별도로 표기한 경우도 볼 수 있었다.

產地에 대한 기록 중 특이한 점은 清代에 들어 遼東에 대한 기록이 증가하고, 인용 내용 중에 高麗를 遼東으로 바꾼 경우가 종종 보인다는 것이다. 細辛, 松, 五味子, 人蔘 등에 그러한 예가 보이는데, 淸은 遼東에서 발흥한 나라로 遼東을 중시하여 高麗라 칭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東海는 가리키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²⁸¹⁾ 이는 渤海로 검색된 내용도 일부 마찬가지이다. 渤海가 한반도와 산둥 반도 이북의 渤海灣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藺菌은 『名醫別錄』에 '生東海池澤及渤海章武'라 하였는데 '章武'는 漢의 渤海郡 章武縣으로 현재 河北省 滄州市 일대로 추정된다.²⁸²⁾ 이와 반대로 海東은 '바다 건

너의 동쪽'을 의미하여 우리나라를 가리킨다고 생각되며, 대부분 우리나라 國名과 함께 등장한다.

IV. 結論

본 논문은 역대 중국 본초서에 실린 우리나라 본초를 확인하고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나라의 이름, 한반도 및 만주의 지명, 별명 등을 DB에서 검색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34종의 문헌에서 69종의 본초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검색된 우리나라 본초들의 예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기록된 경우로는 丹雉鷄, 昆布, 款冬花, 大麻子, 桃仁, 蕪荑, 白附子, 沙蔘, 細辛, 松子, 海松子, 蘭茹, 五味子, 臘臍臍, 人蔘, 榛子, 蛄瓜, 菟絲子, 海蔘, 琥珀 등이 있다. 이들은 東北이라는 방위, 소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 산과 바다가 많은 지리적 요인,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적 요인 등으로 인해 중국의 것보다 좋은 품질로 여겨졌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중국과 다르다고 기록된 경우는 색, 모양, 맛, 부르는 명칭, 본초를 활용하는 방법 등에서 중국과 차이가 있다. 그중 牛骨을 쓰는 것, 擔羅와 昆布를 국으로 끓여 먹는 것, 민물 새우로 蝦醬을 담그는 것 등과 같은 활용법의 차이는 우리 음식문화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한다.

셋째, 중국에서 나지 않는 경우는 주로 遼東에서 나는 것이 많으며, 설화와 관련되거나 현재에도 알 수 없는 동식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를 부르는 명칭 중 가장 많이 쓰인 것은 高麗(高句麗), 新羅, (古)朝鮮이다. 이 명칭들은 그 나라가 망한 후에도 계속 쓰인 경우가 흔하다. 清代에 들어서는 遼東에 대한 자료가 증가하고, 高麗를 遼東으로 바뀌어 표기하는 경우가 흔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 연구는 방대한 자료를 다루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 문제도 있었지만 본초,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역량 부족으로 철저한 고증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281) 陳士瑜는 논문에서 고대 문헌에 기록된 東海가 대부분 黃河와 大清河 사이의 지역을 가리킨다고 주장했다.(陳士瑜, 陳啓武, 藺菌考, 中國農史, (1), 2005. p.30.)

282) 陳士瑜, 陳啓武, 藺菌考, 中國農史, (1), 2005. p.30.

간략한 정리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문헌에 보이는 품종들 사이의 비교나 관련 내용의 인용 관계에 대한 고증은 한 차례 연구로는 완수하기 어려웠으며, 항목 별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중국에 알려진 우리나라 본초들을 문헌 전반에 걸쳐 살펴보았다는 의의가 있고, 앞으로 향약, 의학 교류사, 본초 기원 조사 등과 같은 다른 연구의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더불어 우리 의학의 역사에 관해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지원사업(생애 첫 연구사업)(No2017R1C1B5076769)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습니다.

References

1. Academy of Korean Studies.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Seoul. Woongjin Publications Co.. 19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웅진출판주식회사. 1992.
2. Chen JY original work, Lu Z, Zhao FX ed.. Bencaomengquan.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2013.
陳嘉議 撰, 陸拯, 趙法新 校点. 本草蒙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3.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The historical atlas of China(Vol.VI). Sanhe. China cartographic publishing house. 1996.
中國社會科學院. 中國歷史地圖集(第六冊). 三河. 中國地圖出版社. 1996.
4. Compilation Committee of Encyclopedia of oriental medicine. Encyclopedia of oriental medicine. Seoul. Publications of Kyunghee University. 1999.

-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9.
5. Hua Linfu 外 2人. Dictionary of the Ben cao gang mu, Volume 2: Geographical and Administrative Designations. Univ of California Press. 2016.
 6. Huang GX. Bencaoqiuzhe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7.
黃宮綉. 本草求真.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7. Huang YY original work., Sun QX ed.. Mingyiquanshudacheng(Huangyuanyu).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黃元御 著. 孫洽熙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黃元御).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8. Kim DJ. Korean Medical History. Seoul. Tamgudang. 1981.
김두중. 韓國醫學史(全). 서울. 探求堂. 1981.
 9. Kim KW et al.. General history of Korean medicine. Daesung Publishing Company. 2006.
김기욱 外 15人. 韓醫學通史. 서울. 대성의학사. 2006.
 10. Kou ZS original work, Chang ZF, Huang YY ed.. Bencaoyanyi.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90.
寇宗奭 撰, 常章富, 黃幼羣 點校. 本草衍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11. Lan M. Diannanbencao. Yunnan. ynpress. 1976.
蘭茂. 滇南本草. 雲南. 雲南人民出版社. 1976.
 12. Li SJ. Bencaogangm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2015.
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15.
 13. Li X original work, Shang ZJ ed.. Haiyaobencao.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97.
李珣 原著, 尚志鈞 輯校. 海藥本草. 北京. 人民

- 衛生出版社. 1997.
14. Li ZZ original work, Bao LF ed.. Mingqingmingyiquanshudacheng(Lizhongzi).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1999.
李中梓 著, 包來發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李中梓).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5. Ling H original work., Qian JH. Bencaohaili. Langfa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3.
凌奂 原著, 錢俊華 著. 本草害利. 廊坊.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16. Lu ZY original work, Leng FN, Wang QN ed.. Bencaochengyabanjie.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86.
盧之頤 著, 冷方南, 王齊南 校點. 本草乘雅半偈.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17. Miao XY original work, Ren CR ed.. Mingqingmingyiquanshudacheng(Miuxiyong).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1999.
繆希雍 著, 任春榮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繆希雍).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8. Ni ZM original work., Dai S et al. ed.. Bencaohuiyan. Shanghai. Shanghai Scientific & Technical Publishers. 2005.
倪朱謨 編著, 戴慎 外 4人 點校. 本草滙言.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5.
19. Su J et al. original work, Shang ZJ ed.. Xinxiubencao. Hefei. Anhuikeixuejishuchubanshe. 2005.
蘇敬 等 撰, 尚志鈞 輯校. 新修本草.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5.
20. Su S original work, Shang ZJ ed.. Bencaotujing. Hefei. Anhuikeixuejishuchubanshe. 1994
蘇頌 編撰, 尚志鈞 輯校. 本草圖經.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1994.
21. Tang SW original work, Guo JS et al. ed.. Zhengleibencao. Beijing. Zhongguoyiyaokejichubanshe. 2011.
唐慎微 著, 郭君雙 外 2人 校註.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11.
22. Tang ZH original work., Wang MM, Li L ed.. Mingqingmingyiquanshudacheng(Tangrongchuan).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2.
唐宗海 著, 王咪咪, 李林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唐容川).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2.
23. Tao HJ original work, Shang ZJ, Shang YS ed.. Bencaojingjizh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94.
陶弘景 編, 尚志鈞, 尚元勝 輯校. 本草經集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24. Wang A original work, Xiang ZS ed.. Mingqingmingyiquanshudacheng(Wangang).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1999.
汪昂 著, 項長生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汪昂).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5. Wang RA original work, Lu AZ et al. ed.. Bencaoyidu.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co.. 1987.
汪認庵 撰, 呂庵振 外 3人 點校. 本草易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26. Wu P original work, Shang ZJ ed.. Wushibencaojing. Beijing. zhongyigujichubanshe. 2005.
吳普 著, 尚志鈞 輯校. 吳氏本草經.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27. Wu YL original work., Guo et al. ed.. Bencaocongxin. Beijing. Red Flag Publishing House. 1996.
吳儀洛 著, 郭 外 5人 審訂. 本草從新. 北京. 紅旗出版社. 1996.
28. Yang ST. Bencaoshugouyuan. Shanghai. Sci-Tech and Public Health Press. 1957.

- 楊時泰 輯. 本草述鉤元. 上海. 科技衛生出版社, 1957.
29. Ye ZS original work., Qiu QY ed.. Zhenbenyishujicheng(Vol. 1).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葉志誥 著, 裘慶元 輯. 珍本醫書集成(第1冊).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0. Zhang BC original work., Zhang XX ed.. Bencaobiandu. Beijing. Academy Press. 2011.
張秉成 撰著, 張效霞 校注. 本草便讀. 北京, 學苑出版社, 2011.
31. Zhang Lu original work, Zhang MQ et al. ed.. Mingqingmingyiquanshudacheng (Zhanglu). Beijing. Zhongguozhongyiyaochubanshe. 1999.
張璐 著, 張民慶 外 2人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張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2. Zhang SY original work., Ahn SY, Kim SI trans.. Bencaozhengyi. Seoul. Jisangsa. 2011.
張壽頤 原著, 안세영, 김순일 編譯. 本草正義. 서울. 청홍(지상사). 2011.
33. Zhang ZC original work., Zheng L ed.. Mingqingmingyiquanshudacheng(Zhangzhicong).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1999.
張志聰 著, 鄭林 主編. 明清名醫全書大成(張志聰).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4. Zhao XM original work., Yan ZA, Xiao PX ed.. Bencaogangmushi. Beijing. China Press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07.
趙學敏 著, 閔志安, 蕭培新 校註. 本草綱目拾遺. 北京. 中國醫藥出版社. 2007.
35. Chen SY, Chen QW. Textual research on reeds fungi. Agricultural history of China. (1). 2005.
陳士瑜, 陳啓武. 菴菌考. 中國農史. (1). 2005.
36. Gang YS, An SU. An examination of the indigenous medicinal herbs that appear in Zhongxiuzhenghuojingshizhengleibeiyongbencao.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17(2). 2004.
姜延錫, 安相佑.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에 나타난 鄉藥本草에 대한 고찰. 韓國韓醫學原典學會誌. 17(2). 2004.
37. Jang IS. The Medicine and Daoist culture in the Baekje(百濟) Kingdom. The Paekche Yonku. 52. 2010.
장인성. 百濟의 醫藥과 道教文化. 百濟研究. 52. 2010.
38. Lee HS. The International Aspects of Silla's Medicine. The Paek-San Hakpo. 83. 2009.
이현숙. 신라 의학의 국제성과 의약교류. 白山學報. 83. 2009.
39. Lee HS. The Trade of Goguryeo's medicine in East Asia. The Journal of Korean Ancient History. 69. 2013.
이현숙. 고구려의 의약 교류. 韓國古代史研究. 69. 2013.
40. Lee HS. Bencao in Ancient Korea. Sillasahakpo. 33. 2015.
이현숙. 한국 고대의 본초. 新羅史學報. 33. 2015.
41. Shin SS. The research of Korean medicine and herbs before Korea dynasty.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research report. 12. 1996.
신순식. 고려시대 이전 한의약학에 관한 연구 (I~II).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보고서. 12. 1996
42. Shin YI, Park CG. A study of Medicine in the period of the Three Kingdoms.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3. 1989.
신영일, 박찬국. 三國時代 醫學에 關한 文獻의

- 考察.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3. 1989.
43. Wu JG, Xin ZS. Textual research on sources of yanhusuo (*Corydalis* spp.). Bulletin of Chinese materia medica. 12(12). 1987.
武建國, 辛振聲. 延胡索(元胡)源考. 中藥通報. 12(12). 1987.
44. EBS media center. Chosun Leopard of the Tumen River area That lonely survival[VCR]. Seoul. 1998.
EBS 미디어센터. 두만강의 조선 표범 그 외로운 생존[비디오 녹화자료]. 서울. 1998.
45. Google Maps
(<https://www.google.co.kr/maps>)
46. Siku Quanshu Wenyuange Edition [Portable Hard Disk] Ver.2.0. Hongkong. Dizhi wenhua chuban youxiangongsi. 2016.
文淵閣四庫全書電子版[便攜硬碟模式]. Ver.2.0. 香港.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16.
47. Zhonghuayidian(5th edition). Hunandianziyinxiangchubanshe. Changshashi. 2014.
中華醫典(第五版). 湖南電子音像出版社. 長沙市. 2014.
48. 문화원형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17618&cid=50826&categoryId=50826>)